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땅을 가시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이 땅에 만연된 죄악과 범죄를 다스리시며 고은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 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1-52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2월 24일 (토) 제 1671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플로리다 고교 총격 사건

“총기규제 불가능” 미국사회 현주소 보여준다!

14일 본교 퇴학생이 범인...최소 17명 사망

플로리다 고교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7명이 사망했다. 지난 14일 오후 3시경 플로리다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퇴학생이 반자동 소총을 마구 난사해 최소 17명이 사망했다. 플로리다 주 남쪽 브로워드 카운티의 파크랜드에 있는 마저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Marjory Stoneman Douglas High School)에서 수업 종료 직전 십대 한 명이 반자동 소총인 AR-15를 마구 난사해, 무고한 인명이 또 다시 살상됐다. 경찰은 이 학교에 다니다가 교칙 위반으로 퇴학당한 니콜라스 크루스(19)를 총격 용의자로 체포했다.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총기규제 논쟁이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해결책은 요원하기만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한 정치적 지지 기반이자, 민주당에게는 건드리기에는 너무 “뜨거운 감자”이기때, 미국은 계속해서 총기로 인한 대량 살상사건이라는 몸살을 자주 겪고 통제 불능이라는 불명예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벌써 이번 사건 직후 SNS를 통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총격을 감행하겠다는 예고들이 올라오는 등 모방범죄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별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플로리다주 케이프코럴 의용소방대 소속 목사인 밥 오슬러가 15일 같은 주 파클랜드의 매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한 철조망에 전날 총기난사 사건의 희생자를 상징하는 십자가 17개를 걸고 있다.

운영해왔고 미국 43개 주와 캐나다 3개 주에서 4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한다. 전미총기협회는 개인의 총기 소유 합법화를 주장하는 미국 최대의 로비 단체로,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정치권에 강

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해마다 총기로 인한 사상 건수가 1만 건 안팎에 달하는 총기 살인 대국 미국이 총기 규제의 법제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다.

<3면으로 계속>

방관자를 교회 일꾼으로 변화시켜라!

리더십재벌, “목적이 이끄는 소그룹” 소비자를 생산주체로 세우는 원리 소개

LA 외곽에 있는 A교회에 다니고 있는 박 집사는 교회 생활에 만족한다. 2,000명이 넘는 교회에 다니다보니, 주일 예배만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 듣고, 간단하게 점심까지 먹고 오면 되나,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에 비하면 시간이 너무 남아돈다.

어느덧 교회에 출석한 지 2년이 넘어가지만, 아직도 모르는 얼굴들이 태반이다. 그래서 그런지 누구하나 살갑게 다가와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알려주지도 않는다. 처음엔 친구들이 없다고 주일 아침만 되면 입이 뽀로통했던 9, 10학년 아이들도, 이제는 친구들을 사귀었는지 군소리 없이 따라 나선다.

그런데 아내가 일을 저질렀다. 갑자기 다락방에 참석하겠다고, 그것도 부부 동반으로, 쉬고 있는 박 집사를 거의 강제로(?) 다락방 모임에 끌고 간 것이다. 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박 집사는 “이제 좋은 세월 다 지났다”며, 억지로 한두 번 다락방 모임에 가서 좋은 얼굴을 하고 좋은 이야기만 나누었다. 박 집사처럼 교회에서 방관자로 지냈던 교인들을 봉사자로 세워야만 건강한 교회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전에 다녔던 교회들에서 열정을 다해 섬겼지만, 상처만 하나 가득 안고, 교회를 떠나 A교회에 오게 된 박 집사가 다시 봉사자로 재기(?)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다락방 같은 소그룹을 통해 남편이 다시 교회의 튼실한 일꾼으로 나아가기를 위해 박 집사 아내는 다락방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박 집사와 같은 방관자, 상처 입은 교인을 다시 봉사자로 세울 수 있을까?

임무와 권한 함께 주고, 격려로 봉사 동기 부여 소통과 같은 비전으로 마음 모으는 시간 가져야

소그룹 구성원들을 방관자가 아닌 봉사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봉사가 단순히 성도들을 더 많은 교회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함께 이해하며 공유하는 것이다.

봉사는 각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자의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며, 영광을 돌리는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선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미선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기온 / 교회용품 / 영문서적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inkenhoff Terrace Palisades Park, NY 07650

샌드프린) 347-952-5442 1-800-404-1171 E-mail: qospellmail@hotmail.com



시론 민경엽 목사 2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인/터뷰 유성국 목사 16면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종교 행위 이뤄지는 모든 공간 통제한다!

월드워치모니터,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종교사무조례 개정안 686호 소개

2017년 9월 7일 중국 국무원 리커치양 총리는, 새로 수정된 종교사무조례가 2017년 6월 14일 국무원 제 176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됐고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 686号)을 발표했다. 이로써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종교사무조례(이하 '2005 조례'로 칭함)는 13년 만에 새롭게 개정돼 시행된다.

알다시피 '2005 조례'는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그리고 유일한 종교행정 법규이다.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정교본리의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지만 종교사무조례에는 사뭇 그 원칙에

상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필경 종교를 관리한다는 취지의 법규이기 때문이다. 2018년 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종교사무조례(이하 '2018 조례'로 칭함)가 격변하는 중국 현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촌 종교 자유 감시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 '2018 조례'가 중국내 크리스천들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제한하는 공권력의 시작으로 해석한다(China's new religion regulations expected to increase pressure on Christians).



월드워치모니터에 실린 중국 기독교인들의 십자가 행진 사진

에서 외국 국적 인원을 채용하려는 국무원 종교관리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2005 조례'에서는 종교장소의 설립을 현금 이상 정부 종교관리부처에 신청하게 돼있었다. 하지만 '2018 조례'에 새로 추가된 제 19조에서는 현금에서 신청을 받고 시급에 제출하며 성급 정부부처에서 허가하고 동시에 국무원 종교관리부처에 등기해야 한다고 변경했다. 그리고 제 20조에 종교장소 설립의 "자금 출처가 합법"이어야 하고 설



시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누가 물어오면 나는 언제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꼽는다. 그 긴 영화를 몇 번을 반복해서 본 것 같다. 이게 1930년대의 영화(1939년 작)란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작품이 탁월하지만 비비안 리나 클라크 케이블을 비롯한 수많은 연기자의 연기도 모두 적절하고 훌륭하다. 그러나 내가 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영화에 담긴 미국 남부인들 특유의 강인함 때문이다. 사실은 소설이 나오고 일반에 유행할 때 마차 광풍이 부는 것 같이 잘 팔렸다고 하지만 저자 마거릿 미첼 여사가 이 책을 출판하기까지의 과정 역시 험난했다. 여사는 1929년에 탈고를 하고 수백여 곳의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 이 소설을 출간한 맥밀런 출판사 역시 조판이 1,037쪽이었으니 당시의 원고로 트렁크 하나 가득 잘 분량이었기에 처음에는 읽는 것조차 거절하였다. 그러다가 여사의 절친 파커슨이 출판 결정 담당자가 뉴욕으로 가는 열차의 좌석에 이 트렁크를 놓아두고 꼭 읽어주기를 당부했으나 그는 무시하였다. 다시 인편으로 메모를 전했지만 또 무시하였다. 급기야 전보를 치고 나서야 한숨을 쉬면서 읽기 시작했으나 급속도로 빠져들며 뉴욕에 도착할 때까지 그 어마어마한 원고를 다 읽고는 당장 출판계약을 맺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면, 영화는 남북전쟁의 패배로 인해 남자들은 모두 징병되어 죽었고, 농장은 황폐해지고, 가족은 모조리 도둑맞고, 노예들은 죄다 도망치고, 3년간이나 수확하여 쌓아둔 목화는 모조리 불타버린 상황에서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정신이상이가 되고, 떠나지 못한 가련한 노예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힘겨운 처지에 있는 주인공 스칼렛은 자기 고향 타라의 흙먼지를 움켜쥐고는 재건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이렇게 결심한다. "하나님께 맹세해. 다시는 배고프지 않겠어. 내가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저지르든 다시는 결코 배고프지 않겠어." 그런가 하면 영화의 마지막에는 스칼렛을 사랑했던 남자 주인공 레트가 자기를 떠나버린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가 돌아오게 할까 하는 문제로 안달하던 스칼렛이 우선 잠을 자기로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마다 다른 영감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받은 도전은 이런 것이다. 강한 자는 어떤 문제 앞에서 도물러서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시름을 덮어두고 잠부터 잘 수 있기에 강한 자이기도 하다.

이민 교회에서는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다. 목회자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교인들 간에 서로에 대해 시험이 든다. 최근의 가나안 현상 역시 시험이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라는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잦다. 그러나 교회는 떠나는 사람으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떠나간 그 사람도 새로운 영적인 보금자리를 찾아가기 해매고 방황하고 무기력해진다. 시험을 당할 때 사람들은 외부의 요인을 찾는다. 누구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외부적 요인을 비난하고 자신이 시험을 당하는 현실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의 말을 빌리면, 시험이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모자라는 상태"이다. 시험이란 외부의 요인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자기'의 문제라는 것이다.

최근에 흥수환 선수의 1977년 파나마에서 열린 카라스키아와의 주니어페더급 타이틀이 걸린 권투 시험을 다시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1회전에는 잘 싸우던 그가 2회전에만 네 번 도운을 당하였다. 아나운서도 그가 카라스키아에 비해 기량의 차이가 커서 어쩔 수 없다는 투로 멘트를 날렸는데, 3회전에서 그는 미친 듯이 주먹을 날려 기적과도 같은 KO승을 따냈다. 복싱계에 전무후무한 4전5기의 신화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가 어떻게 이겼는가? 정신의 승리였다. 또한 맷집의 승리였다. 그에게는 두드러 맞으면서 잠시 쓰러졌지만 카라스키아처럼 아예 드러누워 버리지는 않는 단단한 맷집이 있었다. 시험이 드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문제를 일으켜 시험이 들게 하는 요인이 외부에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약한 체질이 시험이 드는 당사자에게도 있는 것이다.

도踵환은 노래하였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는 것은 꽃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꽃들이 흔들리기에 더 강하게 뿌리를 내리듯이 흔들리기 때문에 신자는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강한 체질을 갖는다. 다만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흔들림 속에도 살아남기를 결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 힘든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 나는 우선 잠부터 자야겠어." 시험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잠이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크리스천 활동 원천 봉쇄 목적...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이행' 강조 규정위반 시 인가취소 외 재산몰수 벌금징수 등 경제적 제재 예고

다. "종교사무관리는 합법을 보호하고, 불법을 제지하며, 극단을 억제하고, 침투를 방어하며, 범죄를 타격하는 원칙을 견지한다"라는 이 조항은 '2018 조례'의 다섯 가지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제 4조에는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상호 적응을 적극적으로 인도한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이행한다", "그 누구도 종교를 이용해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그리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서로 다른 종교 사이에, 동일한 종교 내부 및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에 모순과 충돌을 야기해서는 안 되고, 종교극단주의를 선전, 지지, 지원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이용해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테러활동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제 5조에서는 기존의 "각 종교는 독립 자주 자치의 원칙"을 확인하면서 "종교단체, 종교 활동 장소와 종교 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문구에 "종교학교"(신학교, 신학원, 신학대학 등을 지칭)를 추가했다. 종교 관련 학교들을 종교단체와 종교 활동장소에 추가해 함께 언급한 것은 이번 조례의 특징 중 하나다.

제 6조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종교공작을 강화하고 건전한 종교공작 체계를 구축하며 공작 역량과 필요한 공작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새로 추가된 조항이다. '2005 조례'에서는 종교관리 업무를 현금 이상 인민정부에 위임했는데, '2018 조례'에서는 "항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당 행정구역의 종교사무관리공작을 수행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반드시 법에 따라 인민정부의 종교사무관리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가장 말단 기관까지 그 관리 권한을 확대했다.

제 7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설립, 정관, 변경과 말소 등을 "국가 사회단체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새롭게 지정하면서 기존에 국무원 종교사무부처가 관할하던 것을 사회단체로 귀속시키는 새로운 변화를 고지했다. 그리고 제8조 "종교단체

의 구체적인 직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대신 '2005 조례'에서 종교 출판물에 대한 조항을 완전히 삭제시켰다.

제 9조에는 국가급 및 성급 종교단체 외에 "기타 어떠한 조직 혹은 개인도 종교 관련 유학 공작 과전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는 추가 문구를 통해 유학생 파견 주제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1조 "종교학교는 국가급 혹은 성급 종교단체가 설립하고 기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설립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어서 새로 추가된 제 14조, 제 15조, 제 16조, 제 18조 모두 종교학교에 대한 구체적 규정들이다. 특히 제 17조는 종교학교

계가 "도시건설계획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새로 추가된 제 23조에서는 종교장소에 대한 법외관리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민정부처(사회단체 법인을 관리하는 부처를 말함)에 법외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제30조에는 "대형 노천 종교조형을 금지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새로 추가된 제 32조, 제 33조는 종교장소의 신축, 개축 및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들이며, 토지 사용과 구획 설계는 현지 도시계획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3면으로 계속)

<p>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p> <p>·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865-0009(대 표) (323)865-9025(광고국) · Fax:(323)865-0056(편집국) (323)8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p>	<p>■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유원정</p> <p>·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hpcpress@gmail.com</p>
<p>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p>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현수막 | 천막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프로모션 상품

디자인서비스

플래그

롤업배너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현수막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총기규제 불가능” 미국사회 현주소 보여준다!

(1면에서 계속)

미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총기 사건 및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1만6천545명이고, 테러로 숨진 희생자는 313명에 불과했다.

한편 총기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규제하지 않는 이유는 전미총기협회가 트럼프의 핵심 지지기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라스베이거스 총기 참사가 발생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총기 규제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당시 “총기규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모든 것의 끝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규제를 추진할 경우 지지 기반을 잃을 것이라는 의미다.

대낮에 학교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으로 해묵은 총기규제 논쟁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늘 그렇듯 정치권의 외면 속에 문힐 가능성이 높다.

2018년이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올해 미국 내 학교에서 총기가 발사된 사건은 총 18건이고, 그 가운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8건이다. 1월 23일 켄터키 주 마셜카운티 고교에서는 15세 학생이 권총으로 2명을 살해하고 18명에게 부상 입혔다. 2월 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반자동 상태였던 권총이 갑자기 발사돼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총기를 이용한 살인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총기규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2012년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있었던 대대적인 총기규제 입법 시도는 공화당의 반대와 전미총기협회(NRA) 등의 여론전으로 좌절됐다. 대신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또 일부 학부모들을 상대로 방탄 책가방 등을 판매하는 ‘학교 안전사업’이 성행했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방어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의 경우 평소 ‘코드 레드(총 든 사람이 활동 중)’ 상태에 대응

한 예비훈련이 철저히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교사 멜리사 팔코우스키는 “철저하게 준비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면서 “우리 정부와 국가(미국)가 아이들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정권은 철저히 논쟁을 회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이틀날인 15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꾸준히 보고를 해야 한다”며 총기사건의



원인을 범인의 정신이상과 주변의 부주의로 돌렸다. 이후 공식 연설은 다소 표현을 절제했지만 총기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바꿨다는 기분이 들기 위한 행동보다는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사건 발생 20시간이 지난 뒤에도 공식 입장문을 발표,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난사사건 이후 6시간 만에 입장을 내놓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비교되며 비판을 받고 있다.

다른 공화당 정치인도 비슷했다. 릭 스크 플로리다주지사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인물이 총기에 접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나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 대규모 규제 완화를 표방하면서 정신이상 이력 정보를 총기거래 감독 당국과 공유하라는 법을

폐지한 바 있어 빈축을 샀다.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은 비판적인 매체들을 피해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인 폭스뉴스에만 출연해 인터뷰하면서 “지금 총기규제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사건을 둘러싼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할 때”라는 신중론을 폈다.

민주당도 총기규제를 정치 쟁점화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총기규제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들고 나왔던 힐러리 클린턴은 대선에 패배했고, 민주당 의원 일부도 총기규제에 우호적이지 않다. 그나마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코네티컷 주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머피 의원은 “총기에 의한 학살이 계속되는 나라는 미국 말고는 없다”라며 “이

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후 희생자 추모 메시지를 전한 오바마 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총기규제법을 포함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며 규제론을 짧게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스티브 패덕의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장 총기난사로 58명이 숨지고 546명이 부상을 입은 최악의 인명피해 사건이 발생했고, 불과 한 달 뒤인 11월 대니 패트릭 켈리의 텍사스주 교회 총기난사로 26명이 숨졌지만 의회 내에선 총기규제는 커녕 반자동소총을 자동소총처럼 개조하는 효과를 지닌 ‘범프스톡’ 판매 규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71조에서는 불법 종교 활동에 조건을 제공하면 “불법 소득, 불법 재물을 몰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 72조에서는 불법으로 대형 종교조형물 설치하면 “조형 건설공정가격의 5% 이상 10%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8 조례’에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이행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 핵심가치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가장 많이 강조된 개념으로서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근면, 성실, 선량” 등 기본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정보보리의 원칙을 위배하고 종교 신앙의 자유가 간섭되고 심지어 종교 신앙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우려를

자의 재산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제52조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는 비영리조직으로서 그 재산과 수입은 반드시 그 종교 취지에 부합되는 활동 및 공익자선사업에 사용돼야 하고 분배(원문의 ‘분배’는 소비의 뜻을 가지고 있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제 53조는 “어떠한 조직 혹은 개인도 자신이 현금하여 건설된 종교 활동 장소에 대해 소유권, 사용권을 가질 수 없으며, 그 종교 활동장소를 통한 경제수익을 획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제 59조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의 수입은 반드시 법에 따라 세무당국을 해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학



교, 종교 활동장소와 종교 교직원들은 반드시 법에 따라 납세신고서를 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부처는 반드시 법에 따라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와 종교 교직원들에 대해 세수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 외에도 제 50조부터 제 60조까지 모든 조항에 일부 세무관리와 관련한 문구들을 추가하였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번 ‘2018 조례’에는 벌금 처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제 64조에서는 허가 없이 대형 종교 활동을 거행하면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에서는 허가 없이 종교 활동장소를 개설하거나 종교학교를 설립하면 위법 소득과 위법 재물을 몰수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70조에서는 허가 없이 해외의 종교방면 양성훈련, 회의, 참배 등 활동을 조직하면 “2만 위안 이상

날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2018 조례’는 중국 정부가 종교에 관한 엄격한 통제력을 발휘해 보다 확실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의 종교장소, 종교 활동, 종교교육, 인터넷 활용, 해외와의 교류 등 ‘종교행위 공간’이 완전히 통제되는 것이다.

단체, 학교, 장소 등의 인가 요건이 한층 더 강화되고 그 관리부처도 종전의 종교관리부처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 세무, 민정까지 역할 분담이 되고, 감독실행기관도 최말단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에까지 확대해 통제를 강화한다.

규정을 위반할 시 종전의 인가 취소뿐만 아니라 재산, 재물 몰수 및 2만에서 30만 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경제적인 제재도 예고한다.

원로칼럼



박중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목회와 성경공부(하)

대부분 교회 밖의 성경공부가 지나는 약점은 반 교회적이거나 교회론이 없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교회를 강조하다 보면 설 자리가 허약해진다. 그들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했고 교회 인적 자원을 다양한 이유로 포섭해 자기네 단체에 헌신하도록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모든 성경공부는 교회 중심이라야 한다.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가게 하는 성경공부일수록 내용과 성격, 목적과 과정이 문제가 된다.

어떤 목회자의 경우 한 성경공부에 참석한 후 강한 도전을 받고 교회로 돌아와 광고를 시작하고 수강생을 모집했다. 성경공부로 모이는 날은 수요일 기도회 시간으로 정했다. 평소 수요일 기도회에는 150명 정도가 모였다. 그런데 성경공부를 시작한 지 6주가 지나자 100명으로 숫자가 줄고, 10주가 되면서 70명으로 줄어들었다.

필자에게 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그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안 될 수밖에 없었다. 남자들이 젊은이들은 직장 때문에 수요일 밤 예배 출석이 어렵고 나이 든 노인 그룹이 수요일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성경공부를 한 다며 신청하라, 등록하라, 교재를 구입하라, 매번 출석을 부른다, 빠지면 안된다 하면서 부담을 주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따라가려니 힘들어진 것이다. 거기다 교재도 청장년층이나 적응이 가능한 것을 선택한 탓으로 진도 맞추기도 힘들어졌다. 다시 말하면, 관심과 흥미 유발에 실패한 것이다. 필자는 그에게 수요일 예배를 환원하고 성경공부는 교회 상황과 교인 수준을 고려하고 연구한 후 시작하도록 하라는 충고를 준 일이 생각한다.

성경공부는 필요하다. 개인과 교회공동체의 성숙과 부흥을 도출하고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공부가 최상의 방편이거나 출구전략인 것은 아니다.

어떤 목회자는 “성경공부 합시다. 사복음서 공부 시작합니다”라며 시작한 사복음서를 채 끝내지도 않고 바울 서신으로 갔다가 성경 파노라마로 넘어가는 하면, 이것저것을 편력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도 마침표를 찍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 교회 교인들 말에 따르면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끝내 본 일이 없었다”고 한다.

필자의 경우 뱀혈성경공부나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제 1회 수료증을 받았다. 크로스웨이의 경우는 교회에서 시작하지 1년 지나면서 수강생이 8백여 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가급적 교재는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유는 교회 토양에 맞는 교재라야 하고 담임목사가 직접 만든 요리를 식탁에 올려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이기도 했다.

근자에 이르러 여과 과정도 거치지 않고 토양 검증도 없이 외래 수입상품을 반상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아무개 교회가 그것으로 성공했다고 하면 무조건 교회현장으로 끌어들이는 목회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수입상품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좋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유대인을 한 권의 책과 한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 한 권의 책은 성경이고 한 채의 집은 성전을 말한다. 그러나 저들의 성경은 신약이 없고 성전은 그 흔적도 찾기 어려웠다.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곳엔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고난의 역사를 넘어 유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성경공부였다.

한국교회 역시 선교 초기부터 전개된 성경공부가 든든한 초석을 쌓았고 건강한 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반드시 경계할 것은 성경이 교리나 교단을 수호하는 증빙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단의 특징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증빙전(證憑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목사가 삼가야 할 것은 성경공부라는 명패를 내걸고 이곳저곳을 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인들이 조심할 것은 성경공부가 교회생활의 이력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만난 어느 교인의 고인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는 한국에 있는 동안 유명하다는 성경공부와 제자훈련 등 10여 개의 수료증을 받았다.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와 교회를 찾는데 이민교회 어느 곳을 가도 만족이 없고 수준 맞는 교회가 없어 한국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는 성경공부라는 과정과 제자훈련이라는 절차를 거쳤을 뿐 성경공부의 결과인 변화와 섬김의 제자도를 외면했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자존심만 키웠고 기독교 지식인이라는 허세만 키웠다. 그런 성경공부는 의미도 없고 그런 류의 제자훈련은 득보다 실이 크고 가치도 없다.

성경공부 2년 했다고 사람이 변하고 신앙이 변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삶의 변화와 신앙의 갱신을 촉발하는 강력한 파워는 성령과 말씀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증거를 수없이 찾을 수 있다. 성경공부는 필자의 목회에 청야한 유행물이었다. iamcspark@hanmail.net

방관자를 교회 일꾼으로 변화시켜라!

(1면에서 계속)

어떤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교회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은사를 지니고 있다는 진리를 먼저 믿어야 한다. 그 어느 누구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역시 없다. 소그룹의 리더는 조원들에게, ‘당신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당신의 은사는 특별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격려를 통해 이 사실을 일깨워 줄 책임이 있다.

어떤 물건이든지 최적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은사도 마찬가지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지으심을 따라 섬길 때 더욱 능력과 기쁨이 넘치는 봉사를 감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리더는 성도들이 최적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들의 S.H.A.P.E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S(Spiritual Gift)? 어떠한 은사가 있는가? H(Heart)? 어떤 열정이 있는가? A(Ability)?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P(Personality)?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는가? E(Experience)?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고 또 무엇을 배워왔는가?

리더는 위와 같은 질문을 통해 구성원들 각자가 최적의 자리를 찾도록 이끌 수 있다.

소그룹 구성원들이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일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임무와 권한을 함께 주는 것을 잊지 않고, 격려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봉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

에 그저 방관자로 남게되기도 한다.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봉사의 기회를 소개하고, 다양한 섬김의 사례들을 나누다 보면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방관자에서 봉사자로 나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이 함께 봉사에 동참하게 되면 각 개인이 봉사에 뛰어드는 것보다 덜 부담스러운 방식으로 봉사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이 제시되면 구성원들이 방관자에서 봉사자로 나아오게 된다.

또 봉사도 동역하는 사람들은 감사와 인정을 받을 때 더욱 큰 동력과 기쁨을 누린다.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축제, 소그룹의 밤, 연대 행사 등 어떤 명칭과 방법이든 특별한 계기를 창의적으로 기획하여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함께 소통하고 같은 비전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봉사자들은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며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시간은 방관자가 봉사자로 나아오게 됐음을 확인하고 감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을 종교생활을 소비하는 방관자가 아닌 봉사자로 세워나갈 때 소그룹은 더욱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섬기기 위해 지음 받았으며, 다른 이의 섬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 사실을 모두 함께 공유하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 구체적인 섬김의 방법과 기회를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방관자의 모습을 버리고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 함께 맺어가는 열매들을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목장일기

경건은 모양인가? 능력인가?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오랜 전에 목회 연장 교육차 LA에 머물렀을 때였다. 목사들 몇 명이 한 숙소에서 수요일을 맞았다. 교회를 떠나 타지에 와 있지만 수요일 밤 기도회를 거를 수는 없었다. 일행은 의논 끝에 척 스미스 목사가 담임하는 갈보리교회에 가기로 했다.

스미스 목사는 회피들의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회피들은 맨발과 장발족차림으로 당시의 월남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운동을 하면서 집시들처럼

때를 지어 반도덕적인 떠돌이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 그룹이었다. 스미스 목사는 회피들에게 직접적인 회개를 촉구해서 충격을 당하는 바람에 설교단에 방탄유리를 설치했다는 루머까지 돌 정도로 유명했었다. 우리 목사 일행은 하나같이 유니폼처럼 정장차림으로 속소를 나갔다. 성경책마저도 교회당에 꽂혀 있는 영어성경을 본다면 맨손으로 갔다. 집회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

다. 교회당 구석구석을 돌아볼 셈이었다. 그런데 웬걸... 코스타 메사 교회당 문에 들어섰을 때 눈길이 닿는 곳마다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놀라운 것은 그냥 서성거림이 아니라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어깨동무하며 두 사람씩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젊은이들로 온통 뜰이 가득했다. 로비에서도... 작은 교실에서 그 그룹 그룹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기도에 몰입하고 있었다. 오직

구경은 우리 한인 목사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은 없었다. 집회시간에 맞춰서 본당에 자리를 했다. 멕시코 풍의 수수한 단층 예배당은 대략 천 명 정도가 모였다. 집회는 2명의 기타 인도자의 찬양으로 시작되었다. 전혀 요란하지 않았다. 조용했지만 진지하게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찬양했다. 영어 찬양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일행들만 조용했다.

설교시간이 되었을 때 스미스 목사 대신에 젊은 목사가 등단했다. 스미스 목사를 보지 못해서 실망이 되었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설교하러 나온 젊은 목사의 캐주얼 복장이 눈에 거슬렀다. 무심코 회중석을 둘러보는데 하나같이 모두 가 캐주얼 복장이었다. 오직 우리 일행 4사람만이 양복에 넥타이 차림이었다. 무더운 8월에... 우리는 이방인의 표를 확실하게 내고 있었다.

설교는 성경강해로 이어갔다. 본당 의자엔 책꽂이도 성경도 없었다. 회중들은 모두가 자기 성경책을 들고 있었다. 성경을 찾으라는 지시가 있을 때마다 일제히 책장 넘기는 소리들이 마치 파도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본문을 읽을 땐 언더라인을 해가면서 경청하고 있었다. 강해는 한 시간 정도로 길었는데 모두들 말씀 듣는 일에 푸~우~우 빠져 있었다. 그 진지함 속에서 맨손으로 정장만 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성경도 없이 양복만 갖춰 입고 집회에 나온 목사가 경건하냐? 청바지와 티셔츠를 걸쳤으나 성경에 언더라인 하고 있는 젊은 이들이 경건하냐? 참으로 '무엇이 중헌디?' 어느 것이 본질이고 어느 것이 비 본질인가? 나는 그날 본질과 비본질이 바뀐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그 날 이후에 본질과 비본

질 뒤를림에 관해서 많이 생각하는 바릇이 생겼다.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외모에 치우친다. 속보다는 겉이 화려할 때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다. 겉과 속이 다를 때에 '표리부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속과 겉이 동일할 때는 '진실무망'하다고 한다. 경건은 모양보다는 능력이 앞서야 하지만 그 능력도 진실한 포장으로 잘 감쌀 때에 더욱 고품격이 된다. 이제 시작된 사순절 기간에 모양만 내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흡족하게 채움 받는 경건의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여호와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 중심을 보느니라"(삼상16:7).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3:5).

jkim47@gmail.com

푸/른/초/장

장성철 목사
(보스톤장로교회)



사회심리학자 토마스 길로비치(Thomas Gilovich)는 인간에게 처음에 가졌던 선입관이나 선입을 뒷받침 하는 정보는 중요시하고 반대되는 의미의 정보는 무시하려는 '편향 확증(confirmatio-bias)'이란 심리적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성경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특히 과학적, 합리적 논리가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논리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크게 부정하지 않지만, 무시하는 "편향 확증"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에게 나타나신바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한 지혜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초자연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인생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 또한 영원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로 우리의 잘못된 자아와 이해가 깨어지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저 여호와와 그의 지혜를 주시며"(6절).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것은 세상의, 정욕적, 마귀적입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난 하늘의 신령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약 3:15,17).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지혜를 선물로 풍성하게 주십니다.

사도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합니다(1:5). '부족하다'는 의미는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고전1:21).

헬라인은 철학적 지혜를 가지고, 유대인은 사물을 관찰하는 과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노력하지만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없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빈곤을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영적 계시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고전2:6). 어린 아이에 대조하며 온전한 자는 성장한 어른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족하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찾

고, 붙잡아야 합니다. 신령한 지혜의 선물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붙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문에 나온 4쌍의 8가지 동사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없이 받고 간직해야 합니다. "나의 말을 받으라"(1절). 하나님은 야훼,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출3:14).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받아야 하고, 또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딤후3:16).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회개하는 마음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하늘의 지혜를 받는 첫 단계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잠1:7).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1절).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일마다, 매일 같이 인터넷 설교, 설교 CD, 설교집들을 통하여 보고 듣고 있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영적 치매"에 걸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김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약 1:22-24).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거대한 벽을 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2절). 원어적 의미는 "귀를 날카롭게 하며"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

하게 되면 귀를 "쫑긋하고" 듣고, 따라 행합니다. 반면에 존경심이 없으면 '당신은 때들어라'하면서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2절). 신령한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명철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을 압박해오는 문제의 대부분은 신령한 지혜가 아니면 대처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삶을 복음의 원리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환란과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환란과 고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필요하신 것을 알고 이겨낼 힘을 달라고 지혜롭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3절). 순간마다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불러 구하라'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 아니라 자녀로 대하십니다. 자녀가 물어 보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후하게 주십니다.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3절). 명철은 지혜에 큰 힘을 실어줍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고전14:20). '영적 저능아'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저능아란 지혜에 있어서 어린 아이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적 성장과 명철은 아이와 같이 움추린 신앙으로부터 어깨를 펴고 두 손을 올려진 확신에 영광스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같이 그것을 구하며"(4절). 새로운 것을 찾아 내려는 연구자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마치 인생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열심히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세관원이 여행자의 가방에 감추어진 물건을 찾으려고 플래시라이트를 비추는 것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에 깊이 감추어진 보화의

말씀을 성경의 조명하시는 빛으로 찾으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연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벧후3:18).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같이 그것을 찾으면"(4절).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것의 최고 절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물을 안전히 보관하기 위하여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보물을 다시 찾기 위하여 지도나 땅과 나무에 일정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다시 찾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인내하며, 끈질긴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과 새로운 깨달음을 메모해 놓은 것을 다시

한 지혜'의 의미를 NIV성경에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승리를 예비하셨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승리는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3:15).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스럽고 미려한 것이었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살아남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세상에 가득한 파괴적인 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옛부터 인간은 지혜를 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 필요한 지식은 암기하는 정보가 아니라 생각하는 힘입니다. 현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 빈틈없는 논리가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공간! 사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자유롭게 합니다! "느낀다. 그러므로 존재한다"(Sentio ergo sum).

필요한 지식은 엄격히 구분하는 잣대가 아니라 경계를 넘나드는 이해입니다. 울림보다 십자가의 은혜! 말하는 쪽의 입이 아니라 듣는 쪽의 귀입니다. 마음의 목상을 말합니다. 책의 깨알 같은 글씨가 아니라 책을 쥔 손에 맺힌 작은 땀방울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머리를 높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검손을 닮아가는 지혜! 신령한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와 보호자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를 때까지 열심히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구하고, 찾고, 또 다시 찾아가면서 마음에 간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chang@bostonkorea.org

지혜의 법칙

(잠언 2장 1-8절)

보며 기억에서 회피해 진 것들을 다시 추적하여 묵상하고 마음에 새롭게 두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혜 없이 지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식이 없이 지혜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신령한 지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는 최고의 선생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마11:29). 주님께 배울 때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7절). '완전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임을 알게 해줍니다. "여호와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7절). 하나님의 보호하는 힘에 대하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창 15:1, 시33:20, 84:11, 시 89:18).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순간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벧전1:5). 우리는 온갖 위험과 죄로 오염된 세상을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님을 정빙합니다

현 담임목사님께서 올해로 27년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시기에 새 후임 목사님을 찾습니다

지/원/자/격

1. 나이제한: 40~50세
2. 개혁 보수 신학 대학원(M.Div)을 마치신 분
3.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하신 분
4. 5년 이상 목회 경력과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2. 졸업 증명서(대학교와 M.Div) 및 목사 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신앙고백, 목회 경험, 목회비전, 성장배경, 가족소개서)
4. 설교(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최근 것 CD나 동영상)
5. 추천서 두분의 목사님이 추천하시고 추천하신 목사님이 직접 우송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은 개별통지합니다.
7. 제출서류 서류 마감일: 2018년 5월 6일(5월 6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

제출처 주소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청빙위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교회: www.hopestl.org
Tel: (636) 751-6027 이창진 장로
Email: koreanhopestl@gmail.com

교회비전

위로와 심을 얻는 교회
성령의 새 힘을 공급받는 교회
영혼 구원의 사랑을 품은 교회
추수하는 교회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마이크 펜스 부통령,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비방한 자들에게 반응하다

잠시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와 공보관 공보국장으로 있었던 오마로사(Omarosa Manigault-Newman)는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서비스를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유로 해고당한 후 리얼리티 TV쇼, 'The View'(더 뷰)라는 토크 쇼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매우 양심 없고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오마로사는 자신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긴 것이나, 무엇보다 국가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뉘우치는 마음이 고사하고, 자신도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신앙을 비방하며 기독교 신앙을 모독했습니다. 참고로, 오마로사는 캐톨릭으로 알려졌으며 헌금을 많이 한다고 스스로 말하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이없는 리얼리티 TV 스타인 오마로사의 발언은 오히려 수많은 복음주의 유권자들에게 왜 그들이 트럼프/펜스에게 표를 행사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확인시켜 주는 기회가 오히려 되었습니다.

오마로사는 "트럼프가 나쁜 자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펜스를 걱정해야 합니다"라고 ABC 방송사 '더뷰' 최근의 "Celebrity Big Brother" 에피소드에서 말하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마이크 펜스)는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As bad as you think Trump is, you would be worried about Pence --- everyone that is wishing for impeachment might want to reconsider their life," "I am Christian. I love Jesus, but he thinks Jesus tells him to say things," Omarosa told her fellow contestants.)

더뷰의 공동 사회자 서니 호스틴(Sunny Hostin)도 말하기를 "펜스가 이제 이런 종교적인 허식을 꾸며서 말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가치관'에 입각한 유권자'라고 부르면 우리(좌파)는 위험한 상황에 처

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4명의 여성 공동사회자들이 진행하는 더뷰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Sherry Shepard



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에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공동 사회자인 Joy Behar(사진 가운데)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나 예수님이 사람에게 말해 준다는 거, 그렇게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기독교인)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과격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It's



one thing to talk to Jesus; it's another thing when Jesus talks to you. That's called mental illness, if I am not correct.")

그녀는 또한 다른 진행자들에게 "펜스가 아내 없이 방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할 수 있느냐?"고 비웃듯이 물었는데 이는 펜스가 다른 여자와 단 둘이서 방에서 만나지 않기로 한 개인적인 규칙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롱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평생시 늘 온유한 모습으로 알려진 펜스 부통령은 이 에피소드가 방송된 후 "더뷰" 진행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현명하고 확실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제 기독교 신앙을 정신병과 비교하는 것을 ABC The

View 프로그램에서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 평상시처럼(좌파들의 터무니없는 발언들에 놀아넘겼듯이) 웃어넘겼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잘

못된 것("Simply Wrong")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만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대다수 미국 사람들에게 대한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기독교 신앙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반응은 부통령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미국의 수백만 복음

주의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감정이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를 대선 때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The View의 진행자들이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이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 이렇게 인격모독을 시킨 것에 대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매우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뷰'의 여성들은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MeToo 나요!"라는 '자신이 예전에 당한 성적 학대에 대하여 공개하는 운동'에 공감하는 진행자들로서, 여성들이 존경과 품위로 대우받고 성적 학대와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여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철저한 이중 잣대를 가지

고 오히려 여성의 인격을 보호하고 존중해주려는 마이크 펜스를 자신들의 치우쳐진 "안티 트럼프, 안티 펜스" 기준을 가지고 이번 경우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정신병자들'로 취급한 것입니다.

참고로, 트럼프와 펜스가 대통령, 부통령으로 대선에서 뽑히자마자 여성인권운동가들, 동성애 운동가들, 낙태지지 운동가들은 즉각적으로 "안티 트럼프, 안티- 마이크펜스"라는 간판을 내걸고 그들을 끌어내리겠다는 전념으로 지금까지 반대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여성을 만나는 것에 대한 철칙

펜스부통령은 여성을 단둘이서 만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피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며 불필요한 스캔들, 즉 의도나 위법 행위에 대한 의심조차도 원하지 않기에 철두철미한 이성에 대한 철칙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세대에게는 전혀 모범이 되지 않는 헐리우드 라이프스타일을 좇아가는 ABC 방송 The View에 나온 진행자들이 아내를 진정 사랑하고 존중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살아가고 있는 펜스부통령을 이렇듯 조롱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수백만의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성적 학대를 받는다고 일어나고 있는 이때 펜스부통령의 행동은 이 시대에 참으로 모범이 되고 존경받아야 할 철칙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왜곡된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큰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도 개탄할 현실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앞으로 이런 굳건한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여 미국을 바로 세우고 트럼프대통령을 계속 잘 보조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국가로 회복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인물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한국의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와 안보와 국방 등 외교의 방향을 이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볼 때 국가가 자유 민주주의에서 차츰 사회주의로 전환되는 것 같아 심히 불안하고 이제 절망감이 듭니다. 저는 현 시국이 국가적 위기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보수주의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고 사회, 정치적인 문제는 그냥 침묵과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설교자가 그래도 되는지요?

-실버치에서 김 목사

A: 약간 논쟁을 가져다줄 수 있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저도 같은 목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 같은 시각을 가지고 답답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교인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에 조심스러워서 목회자들이 침묵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너무 좌클릭 해서 그 위험수위가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위기에 처하면 기독교인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는 설교자로서 꼭 필요한 때에는 강단에서 국가에 바른 정치를 요구하고 나라가 나아갈 올바른 길과 방향성을 선지자적인 용기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로베레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40년대 이탈리아의 제노바 항구는 독일의 나치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항구에 영웅적인 저항군 지도자 로베레 장군이 상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살이 되고 맙니다. 이에 독일 보안대는 이 사실을 감

'교회는 국가의 양심' ...선한 정치 요구해야

추고 바르도네란 사기꾼을 로베레 장군으로 위장시켜 레지스탕스 가담자들을 가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평생 남의 불행이나 약점을 이용해 등쳐먹고 살던 사기꾼 바르도네는 감옥에서 로베레 장군 행세를 하면서 죄수들에게서 정보를 얻어내면, 나치에게 상당한 보상을 약속을 받고 가짜 로베레 장군 역할을 해나갑니다.

가짜 로베레 장군인 줄 모르는 동지들은 이 영웅적인 지도자에게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바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비열한 사기꾼은 마음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들의 존경과 신뢰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 그는 진짜 로베레 장군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동료 죄수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면 그는 그들을 타이르고 중재도 하고, 죽음의 공포에 떠는 죄수에게는 애국투사로서의 용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감옥동지들의 구심점인 그는 진정한 로베레 장군으로서 동지들과 함께 의연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 동지들을 격려하는 연설을 마친 후 결국 함께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체포되어 죽게 되었다"고 원통해 하는 한 죄수를 향해 "조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대는 조국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큰 죄다! 너는 그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하다"라는 명대사가 같이 남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조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구경꾼이나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큰 죄임을 말해줍니다. 한국은 현재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사와 출신들이 실제로 등장해 간첩 잡는 국정원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군병력 10만명 감축(60만에서 50만으로 그러나 북한은 120만 이상), 군 복무연한 축소, 전시 작전권 이양, 사드배치 반대, 각 언론사 장악, 우익보수인사들을 적폐란 명목으로 구속 수감하고 친중 친북 방향으로 나가고 은근히 반미방향으로 대통령 측근들과 여론은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국가의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나라의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친 애굽정책을 펴고 반 바벨론정책을 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친 바벨론 정책을 펴라고 했으나 그는 옥에 갇히고 결국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신학을 전공한 서영일 교수는 "교회와 국가라는 책에서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되 교회는 국가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심의 역할이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고 지적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타락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에 선한 정치를 요구해야 하며, 그러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재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마크-하자라족(AIMAQ HAZARA)



아이마크-하자라족은 아프가니스탄의 중부 산지에 거주하는 소수종족이다. 이들은 8개의 부족 중 하나이자 아프가니스탄과 북부 이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차르 아이마크(Char Aimaq)족에 속한다. 이들 부족 모두는 아이마크(Aimaq)어를 사용한다. 이 언어는 페르시아어에 속하지만 튀르크어(turkic)의 어휘를 사용한다.

수년 동안 차르 아이마크 부족은 여러 정부에 의해 이주하면서 흩어지고 합쳐지곤 했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은 반유목민적(semi-nomadic)으로 살아가는 부족으로 바위투성이 산지를 자유롭게 여행하며 다닌다. 이들은 무역통로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지역에 거주한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차르 아이마크족들은 혼합된 유산을 남겼다. 이들 중 대부분은 소련의 침공 시에 또한 잇따른 내전에서 아주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삶의 모습

한때 아이마크-하자라족은 완전한 유목민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특정 계절에만 이동하는 반유목민이다. 많은 아이마크-하자라 유목민들은 가뭄과 부식으로 인해(erosion)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농부로 전업했다. 이들은 원시적인 켈리와 나무 쟁기로 밀, 포도, 쌀, 보리, 귀리(oats), 멜론 그리고 야채 등을 재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이들의 문화에 있어서 부업으로 여겨지며 한 사람의 재산은 그가 소유한 가축의 양으로 결정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은 고기와 우유, 지방과 치즈를 제공하는 가축에게 매우 의존적이다. 동물의 가죽은 또한 천막을 만드는데 이용된다. 농사를 짓는 동안 아이마크-하자라족은 마을의 돌에서 거주한다. 이들의 가축 떼들을 계곡에 남겨 놓고 모아 놓은 곡식을 먹인

다. 봄과 여름에 이들은 산지를 다니면서 천막에서 거주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의 사회는 가부장적(patriarchal, male-dominated, 남성중심)이면서 부계(patrilinal, tracing ancestral descent through the males, 남성을 통해 조상의 가계가 이어지는) 사회이다. 핵가족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는 대개 남자와 부모, 부인 혹은 부인들 그리고 자녀들로 이루어진다. 젊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그녀는 그 남편 가족의 일부분이 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에서의 정체성은 가족과 씨족에 기초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의 여자는 가족 때 돌보기를 돕기도 하지만 이들의 주된 업무는 카페트를 짜는 것이다. 각 부족 혹은 마을은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딸에게로 전수되는 그들만의 유일한 패턴이 있다.

식량이 부족할 때는 카페트 장사로 벌어들인 돈이 아이마크-하자라족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되기도 한다. 카페트는 가족, 현금과 함께 결혼의 지불금(혹은 지침금)으로도 사용된다.

신앙

아이마크-하자라족은 헌신적인 무슬림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신앙을 이슬람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믿는 하나피 분파에 속한다. 이들의 강한 이슬람 신앙은 종종 기독교가 유일신관을 훼손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많은 무슬림들은 꾸란에 인용된 구약의 이야기들에 친숙하다. 이들 역시 자신들의 영적 활동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라고 주장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시기와 이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자유의 전사"들을 위해 군사적인 지원을 했다. 오늘날 이 나라는 정치적 전쟁과 인권침해를 분투하고 있어서 그 지원은 중단됐다. 전 국토가 소련과의 전쟁으로 심각하게 훼손됐다. 모든 마을은 파괴됐고 식량공급이 위협을 받고 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안전한 식수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어떤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지속되고 있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은 먼 거리에 널리 퍼져있음으로 인해 복음을 듣기가 어렵다. 현재 아이마크-하자라족에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 흑인, 백인·히스패닉보다 더 모범적 신앙생활

미국 흑인이 백인·히스패닉보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 비율도 이들 인종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흑인의 종교 실태를 분석해 최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를 믿는 미국 흑인 비율은 10명 중 7명꼴(71%)로 백인(48%)의 1.5배, 히스패닉(27%)의 2.6배에 달했다. 가톨릭은 히스패닉(48%), 백인(19%), 흑인(5%) 순이었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백인(24%)이 가장 많았고, 히스패닉(20%), 흑인(18%)이 뒤를 이었다. 흑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백인이나 히스패닉보다 더 독실했다.

'신앙이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까'라는 질문에 흑인 4명 중 3명(75%)이 '그렇다'고 답했다. 히스패닉은 59%, 백인은 49%로 나타났다. '매일 기도합니까'에 대해서는 흑인(73%), 히스패닉(58%), 백인(52%) 순으로 응답했고, '매주 예배에 참석합니까'에는 흑인(47%), 히스패닉(39%), 백인(34%) 순으로 답했다.

흑인이 기타 인종에 비해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신앙에 대한 회의주의적 흐름은 이들 가운데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퓨리서치센터가 종교지향도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7년 당시 흑인 중 '종교가 없다'고 답한 경우는 12%였다. 이 비율은 2014년 18%까지 높아졌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장년층보다 종교에 관심이 없는 비율이 더 높았다.

전문가들은 과거 노예로 끌려왔던 흑인들이 자신들을 탄압하던 백인들의 종교인 기독교를 더 열심히 믿게 된 배경을 죄와 억압에서 구원하는 복음에서 찾는다. 에머슨 파워리, 로드니 새들러 교수는 공저 '해방의 기원'(The Genesis of Liberation)에서 "흑인 노예들은 박해를 당했던 구원자 예수를 자신들의 처지와 연결 지어 생각했다"며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억압받는 자를 이 땅에서,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죄악과 학대자들로부터 구원하는 분이심을 믿었다"고 말했다.

호주 교회의 이유 있는 항변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로 모든 공적 영역에서의 '동성애자' 차별이 금지된 호주에서 한 대형교회가 이에 정면으로 맞서 화제가 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시에 위치한 힐송처치(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는 '성적 차별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빼달라고 호주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미국 기독교매체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호주는 2009년 동성결혼의 사실혼을 인정했으며, 2013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법'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동성 간 결혼까지 합법화하기도 했다.

힐송처치는 연방정부에 보낸 청원서에서 "동성결혼까지 합법화됨에 따라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신앙인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의사표현이나 활동이 (동성애 옹호단체 등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으며 이제는 종교적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힐송처치는 오순절 계통의 호주기독교교회(ACC·Australian Christian Churches) 교단 소속으로, 지교회들을 포함해 매주 10만여명의 성도가 예배에 출석한다.

호주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인 '호주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of Australia)'와 성공회 시드니 교구도 힐송처치와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의 법적 권리를 취소해 달라거나 신앙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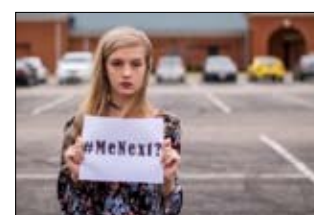
위한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종교적 자유에는 종교적 이유로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기독교학교 교목을 뽑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또 학교 예배당을 동성애 결혼식에 사용하지 않을 권리를 요구했다. 종교적 자유를 보호해 달라는 요구는 지난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직전, 몇몇 교회에 의해 주장되기 시작했다.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돼도 성경적 결혼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으로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결혼과 관련해 기독교인에게 신앙적인 타협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노한 미 십대들 '#미 넥스트' 운동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 이후 미 전역에서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10대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꼭 이번 참사가 아니더라도, 최근 미국에서 학교를 배경으로 한 총기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무고한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강력한 총기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풀뿌리 운동으로 진화했다. 성폭력 고발 캠페인인 '#Me Too'를 차용한 '#Never Again(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Me Next?(다음번엔 내차례?)' 등의 해시태그도 등장했다.

18일 BBC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파크랜드 소재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 재학 중인 알렉스 윈드는 친구 넷과 함께 'Never Again' 캠페인을 시작했다. 윈드는 "19살이 술은 살 수 없지만, 전쟁무기인 AR-15를 살 수 있다는 건 단연컨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근 잇따른 학교 총기난사 사건에서 반자동 소총인 AR-15이 종종 범행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판매 규제 논란이 불붙는 가운데, 미국에서 주류 판매 제한 연령보다 AR-15 판매 제한 연령이 더 낮은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들은 오는 3월 24일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을 할 예정이다.

코네티컷 주에 사는 레인 머독(15)은 1999년 컬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 발생일(4월 20일)에 총기폭력에 반대하는 '전국 고교생의 도보 행진'을 위한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다. 현재 서명자 수는 5만5천명을 넘어섰다.

뉴욕주의 펠렘에 거주하는 고교생 바이얼릿 매시 베레카는 누구라도 다음엔 총기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환기시키는 뜻에서 '#미 넥스트' 캠페인을 고안했다. 온라인에는 '#미 넥스트' 문구와 함께 찍은 사진과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공짜한 사건 현장을 직접 목도했던 학생은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글을 보내 "친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1학년생이라고 소개한 크리스틴 아레는 사건 당시 수업이 끝날 때 즈음 소방 벨이 울렸고,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선생님의 지시에 서투르치로 가득한 벽장에 숨어있었다고 회상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충격받 대충 혼란"인 줄 알았다고 했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 휴대전화엔 자신의 안부를 묻는 가족과 친구들의 메시지로 가득 찼고,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불과 50피트(약 15미터) 앞에 총격범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아레는 작은 벌레 안에서 한 시간쯤 공포에 떨고 나서야 구조됐다. 그는 이 사건이 여전히 영화 같고, 악몽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당파를 넘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며 "더 강력한 총기규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이런 일이 당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음번엔

당신 가족, 친구, 이웃이 될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 민주·공화, 이민법 '진전된 합의안' 도출

'첫다운 메이커' 이민법을 개정하고 미국 의회가 진전된 합의안을 도출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까지 일부 수용한 절충안을 만들어 내면서 이민법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의회전문지 더힐 등 현지 언론들은 여야 온건파 상원의원 모임인 '상식 연합'(Common Sense Coalition)이 진전된 이민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불법체류 이민 청년 '드리머' 180만명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10년 동안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국경안보 비용으로 250억 달러를 책정하는 등이 주요 골자다.

상식 연합은 공화당 8명과 민주당 8명, 무소속 1명 등 17명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민주당의 기본 요구 사항을 지키면서 멕시코 국경장벽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안을 도출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합의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4개의 기둥(four pillars)' 상당수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마련해줄 원하는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는 양당 합의에서 '향후 10년'으로 시한이 조정됐다. 가족 초청 이민 대상은 축소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요구 수준보다는 완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려했던 비자 추첨제는 현행 유지를 합의했다.

하지만 양쪽 진영에서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의회 통과와 백악관 서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거대한 사면"이라고 비난했다. 불법 이민청년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반대급부로 국경 안보 등에서 얻어낸 것이 별로 없다는 이유에서다. 벌써 백악관이 합의안 반대를 위해 의회에 몰릴 작업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양당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을 "거대한 사면(giant amnesty)"이라고 비난했다. 국경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폭 양보를 하면서 불법청년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상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공화당 강경 보수파의 하원 반대표를 넘어서긴 어렵다는 관측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날 자신이 요구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민법 개정안은 오는 3월 5일 전에 의회 표결과 백악관 서명을 완료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불법청년 추방 유예(DACA)' 폐지를 선언하면서 제시한 6개월 시한이다.

미 의회 토론에서 이름불린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김(18·사진)이 미국 의회의 이민법 논쟁에 소환됐다. 클로이 김은 미국에 이민 온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이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디 더빈 의원은 13일 상원 이민개혁 토론회에서 평창을 들쭉이게 한 클로이 김의 금메달 소식을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기조를 비판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더빈 의원은 클로이 김의 부모가 특별한 재능을 지닌 딸을 지구 정점으로 뒷바라지해 금메달리스트로 길러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클로이 김 가족 이야기는 미국에 많은 돈을 가져오지도 않고, 때론 영예에도 익숙지 않은 수많은 이민자들과 닮아 있다"며 "그들은 오직 더 나은 삶과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또 "클로이 김의 이야기는 미국 이민의 이야기"라며 드리머(불법체류 이민2세대)를 포함해 이민자들에게 미국을 열어주는 것이 서로 '윈-윈'임을 상기시켰다. 이민 억제 정책이 계속되면 1982년 단돈 몇 백 달러를 들고 미국에 건너간 아버지 김중진씨와 클로이 김 같은 성공 스토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구사력과 기술에 따라 차등 평가해 이민을 받으려 한다며 "부와 재능을 갖고 오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한국에서도 스타 반열에 오른 클로이 김을 두고 한국 네티즌들이 자조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클로이 김 아버지는 딸의 금메달 획득을 '아메리칸 드림'으로 묘사했지만, 일각에선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금메달을 딸 수 없었을 것'이라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클로이가 한국에서 자랐다면 종일 서클버스를 타고 학원 뱅뱅이나 돌고 있었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소절미디가 글이 대표적 사례로 소개됐다. 또 "한국에서 자랐다면 평범한 직장여성이 됐을 것이다. 한국은 재능을 블랙홀에 물어두게 하는 나라"라는 글도 전했다.

'대중장 피란민 행렬' 찍은 맥스 데스포 중군기자 별세

한국전쟁 당시 역사적인 대중장 피란민 행렬을 찍은 미국 중군 사진기자 맥스 데스포가 19일 104세를 일기로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뉴욕의 유대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933년 AP 통신에 입사, 2차 대전 중군기자로 활동했다. 종전 당시에는 미 해군 전함 미주리호에서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을 찍어 역사에 남겼다.

이어 한국전쟁에도 중군기자로 지원한 그는 1950년 12월 4일 피란민 행렬이 미군 전투기의 포화에 무너진 대중장 철교를 중공군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건너는 장면을 촬영, 이듬해 풀리처상을 받았다.

다시 불 붙는 시리아 내전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지역에 집중포화를 퍼부어 하루 만에 어린이 수십 명을 포함해 100명 가까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리아 내전이 다시 격렬해지는 모습이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19일 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의 반군 최대 근거지 동(東)구타 지역에 공습과 로켓포 및 대포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 24시간 사이 최소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가 20명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는 470여 명에 달한다.

라미 압델 라흐만 SOHR 소장은 "정부군의 집중 공격은 동구타 내 모든 주거지역을 겨냥했다"며 "정부군은 대량 폭격에 이어 대규모 지상 공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구타는 반군에 마지막 남은 거점으로 민간인은 40만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군은 2012년 12월부터 동구타 일대를 봉쇄하고 공습을 벌여 왔다.

정부군과 동맹 관계인 러시아·이란·튀키는 지난해 동구타를 긴장완화 지대로 분류했다. 긴장완화 지대에서는 당사자 간 전투는 물론 외국군의 공격도 금지되며 주민들에게 구호품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봉쇄를 풀지 않았고 최근 들어서는 공세까지 다시 강화해 이달 초 4일간 약 20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타 지역 한 의사는 DPA통신 인터뷰에서 "정부 전투기들이 주거지역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쏘고 있다"며 "우리 병원은 부상자로 가득 찼고 미취체와 기체 필수 약품이 바닥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45. 김태목(1908-1994년)

김태목은 1908년 10월 경북 대구에서 선종불가 범용화상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6세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불타는 소망을 붙여넣어줄 수 있는 곳은 교회뿐임을 알고 어린 시절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일본의 교육가 신도양 선생에 관한 기사를 읽고 1930년에 그가 세운 일본 동지사 중학교 입학한 이후 대학예과를 거쳐 1936년에 문학부 신학과를 졸업하기까지 10년간 공부했다. 1937년에 경북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그는 대구성경학교 교사와 계성학교 등 기독교 재단 학교에서 교목으로 활동하면서 청년운동을 시작했다.

신사참배 거부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는 1939년에 부인과 함께 도미하여 1941년 오버린 대학 대학원 신학부를 졸업하였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당한 후 미국의 국방성 초청으로 상항으로 이주하여 '미국의 소리'의 전신인 OWI에서 일어방송을 의뢰받고 2차 대전 중 부전선을 맡아 동남아시아를 향해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군이 항복할 것을 권유하는 방송을 1948년 7월까지 담당했다. 이에 일본은 권석재판을 열어 김태목에게 사형선고를 내린다.

그는 유학생 단체인 신도회에 참여하였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나성의 3백여 명의 일본인을 심문할 때 통역을 맡았고, 일본어 서신 검열 및 주미 일인단체의 1,200여명에 대한 성분조사에도 협력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

OWI에서 활동하던 때 박용학 목사의 뒤를 이어 김태목은 1944년 2월에 해리스 스트리트 520번지에 위치했던 오클랜드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 그 해 8월 그는 재미 한인학생회 상항지회에서 '종교정책의 구체안'을 발표했다. 그 해 12월 24일 하오 8시에 동 교회에서 성탄축하식이 있었는데 그의

소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배와 한글학교를 진행했다.

하와이 한인기독교교회

고국으로 귀국하려고 했지만 임영신을 통하여 전달받은 가족의 서신에는 일본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할 것을 염려하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말 것을 권하자 김태목은 오클랜드 한인교회를 사임한 후 하와이에 건너가 설교를 펴기로 결심한다. 그는 백발이 다된 교포들에게 “



김태목 목사

1학년인 10살 때 상해 임시정부와 이승만 박사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들었고 상해로 망명한 친척도 있어 이 박사가 늘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우연히 만나니 감격스러웠다고 한다.

광복이 되자 귀국하려 했으나 미국 정부가 군사수송 때문에 2년간 민간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그가 귀국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해 12월 17일 거주 한인 유학생과 함께 귀국하여 군정 하에서 경북 도지사였던 미군 야담스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서울에 올라와 입법위원회(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러치 군정장관에게 보고하는 연락원으로 활동했다.

하와이 고등법원으로부터 한인 교회가 2년 동안 분규상태에 있으니 속히 수습하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이승만의 권유로 1948년 7월에 이승만이 개척한 하와이 한인기독교회로 부임했다. 3개월 만에 교회 분규를 해결했지만 얼마 후 그는 6.25동란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조국은 망하지 않는다고 설

당시 모든 회중이 영어로 예배 드린다는 원칙하에 미국장로교회가 한인교회 개척에 회의적이었던 반면에 미국감리교회는 적극적으로 있다. 그 해 10월에 32명이 모인



워싱턴DC의 폰드리 감리교회

가운데 김태목의 인도로 첫 예배를 드렸고 그 날 예배에서 드린 헌금은 17.30달러였다. 그는 귀국 차 1954년 3월에 사임하였고 오창희 목사가 그 뒤를 이었으니 2년 6개월만 교회를 섬긴 셈이다.

금하여 6월은 중경의 임시정부에, 4월은 워싱턴 외교위원부에 보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 목회 중 김태목은 1944년과 1945년의 오클

랜드 지방회 삼일기념식에서 '삼일운동사'를 강연했고, 국치기념식에서 기도순서를 맡았으며, 순국선열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담당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구세와 군사운동금 및 상항대표단 여비 의연금을 냈다. 그리고 전쟁에 출정한 한인 군인을 위한 기독교 자선사업 단체인 한족 출정군인친족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왔으며, 상항의 고 장영신과 고 차정선의 장례식에 부의금을 보냈다. 하와이에서 목회하는 동안 김태목은 국민회와 동지회의 단합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이들의 독립운동에도 관여하였다.

상항한인연합장로교회

김태목은 1954년 서울 남대문교회 목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교장(1956-1957)과 YMCA 총무(1957년)를 지낸바 있다. 4.19가 나자 그는 도미하여 1960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연구했고, 이듬해 워싱턴 웨슬레 신학원에서 가정상담학을 연구했으며, 미국 워싱턴 성 엘리자베스 정신병원에 근무하면서 목회상담학을 수련하였고, 뉴욕의 종교와 정신병학연구소에서 다시 수업을 하였다. 그 후 귀국한 그는 1968년에 한국정신위생원을 창립하고 원장으로 있었으며, '생명의 전파'를 시도했다.

이후 김태목은 도미하여 상항에 거주했는데 상항한인연합장로교회는 1979년에 그를 원로목사로 추대하였다. 이정근 목사가 사임하던 1980년 그는 임시목사로 추대되어 김윤근 목사가 부임하기까지 교회를 섬겼다. 그는 1994년 12월 18일에 향년 86세로 상항에서 소천했다.

damien.sohn@gmail.com

16세에 개종, 목사의 꿈 가진 후 부인과 도미, 오버린신학부 졸업 오클랜드한인교회, 하와이한인기독교교회 담임... 독립운동 적극 지원 미국과 한국 오가며 사역... 1979년 상항한인연합장로교회 원로목사 추대



오클랜드교회

한영회에서 김태목은 '임두화 목사의 계임을 기뻐합니다'라고 하였고 임두화는 권설을 진술하였다. 이날 교인들은 김태목의 사임을 섭섭히 여기면서 그가 1년 동안 오클랜드 교회를 위하여 노력한 성적이 많다고 했다.

연회 보고에 따르면 박용학 목사와 김창수 목사의 연이은 징집에도 불구하고 김태목은 의자와 성만찬 상을 마련하였고, 분담금이나 목회자 사례비를 지불할 정도로 교인수가 증가했고, 공간이 협

일제의 멍에에 신음하는 조국 동포들을 보다 못해 지쳐서 왔다. 더욱이 여러분 모두가 일본말을 사용하고 일본사람이 되어간다는 말을 듣고 달려왔다"고 한 후 "조국에서는 젊은이들이 광복을 위해 지하운동을 하고 있으니 희망을 가져달라"고 호소를 했다.

그가 설교를 끝내고 강단에서 내려서는데 흰머리의 노인이 다가와 손을 덥석 잡고 "나 이승만이야"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갑자기 눈물이 날만큼 감격스러웠다. 초등학교



하와이 한인기독교교회

교로 위로하고, 승전을 위한 기도 및 구호금 모집운동을 벌여 고국에 있는 교회에 보냈다.

화부 한인감리교회

김태목은 1951년에 워싱턴으로 이주하였다. 한국 외무부에서 파견 나온 박원규와 유학생 고병철과 함께 이승만이 출석했던 워싱턴 DC 16가에 소재한 폰드리 감리교회의 소예배실을 빌려 화부 한인 감리교회를 개척한다.

독립운동과 동포 사랑

도미 후 유학생 시절에 김태목은 독립금을 기부했고, 1943년 11월 상항 국치기념식에서 기도순서를 맡았으며, 그 해 12월에 미영중 3국의 카이로 회담 후 상항에서 개최한 북가주 대한인 시국 대회 때 기도 순서를 담당했다. 그는 상항에 한인인민위원회를 창설하고 하와이에 지회를 두고 5천여 명의 교포로부터 매달 1인당 5달러를 모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 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리더십 코멘터리 (59)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손 놓고 있는 리더에게 쟁하고 해 뜰 날은 오지 않는다

작심삼일은 4천년된 인간의 습관이다

신년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아무리 야심차도, 공 들여 밀출 쪽, 별표 세 개를 붙여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애 결심은 늘 수포로 돌아갈까? 이런 최대의 난제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답은 싱거운 정도로 간단하다. "실천을 이루는 것은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간은 원래부터 노력을 부리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주장한다.

작심삼일(A resolution kept for only three days)이라는 말이 있다. 결심한 마음이 오직 3일간 유지한다는 뜻이고 이는 3일 동안의 일관된 마음자세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단, 3일간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친다면 3일이 지나도 변화는 없으며, 일관된 마음을 3일간 지속하여 변화를 꾀한다는 조상의 삶의 지혜가 깃들어 있다.

'새해 결심'은 4000년 전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바빌로니아인들은 당시 달력에 따라 새해가 시작되는 3월이 되면 11일간 축제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빌렸던 물건이나 도구들 갖다 밧에서 벗어내고, 남에게 덕을 얻는 것을 새해 결심으로 삼았다. 고대 이집트·로마 사람들도 '새해 결심'을 했다. 주로 적이나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 '화해'를 구하겠다는 다짐이 인기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구한 전통을 가진 '새해 결심'이 흐지부지되는 이유는 뭘까. '신년 다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내 의지가 처음과 같지 않아서'가 47.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다짐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짜지 않아서(24.7%)', '주변사람들과 상황이 나를 돕지 않아서(12.3%)' 등이 뒤를 이었다.

재미있는 원인이 있다. '호르몬' 문제라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부신피질의 방어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의 작용 기간은 약 사흘 정도다. 새해 다짐을

지키려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수치가 올라가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자연스레 포기라는 치유의 과정으로 들어선다는 주장이다.

목표를 널리 알려 공유하라

전문가들은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새해 목표를 널리 알리라"고 조언한다. 시카고 드폴대학교 심리학 교수 조 페라리는 '신년 다짐을 비밀로 유지하면 아무도 당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두 번째 방법은,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동기에만 의존한다면 무엇인가를 꾸준히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1년 365일 동안 항상 의욕이 가득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의욕이 없던,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몸이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상관없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목표를 이루어 나가라.

세 번째 방법은, 목표를 작게 줄이는 것이다. 목표 줄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작에 대한 거부감도 함께 줄어든다는 것이다. 시작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항상 목표했던 것보다 많은 양을 달성하게 된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기회의 문은 밀어야 열린다

번지르르한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생각만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둔 것이 있다면 의미 없는 말만 되풀이 할 것

에 달아 있다.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상태를 벗어나는 순간이 있긴 한데 그것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가 그렇다. 오랜 세월 알뜰살뜰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장만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다. 이와 비슷한 일들은 많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경우에 즐거움을 보며 담은 다 나온다. 문제는 이런 것으로 기쁨과 평화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쁨과 평화로 경험되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우리 손에서 다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오죽했으면 새옹지마라는 고사가 나왔겠는가?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놀라운 기쁨으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평범한 일상으로 떨어진다라는 사실이다. 그 대상이 무엇이었든지 그 결과는 다 마찬가지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살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상의 반복 가운데서 일회일비 하면서 살아간다. 기쁨과 평화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삶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과 생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 느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야 자신의 평범 인정하고 격려, 평정심 유지, 목표 줄이기로 극복

신의 목표를 확인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SNS 등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공유한다면 사람들이 당신의 다짐을 점검할 것이고 당신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손 놓고 있는 리더에게 쟁하고 해 뜰 날은 오지 않는다. 손 놓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흔히 언젠가는 어떤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곤 한다. 그런데 그 언젠가라는 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면 그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라. 언젠가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다. 언젠가라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 날이다(One of these days is none of these days).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나 자신의 평범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푸시(push)하기보다는 스스로를 격려해준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욕심, 걱정, 비교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결심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몰아치고 다그칠 때의 스트레스는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아니라 곧바로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실천보다 더 강력한 의사표시는 없다. 움직여라. 그래야 인생이 변하고 사회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실천이 말보다 낫다(Well done is better than well said).

기회란 손을 내민 자에게 떨어진다. 기회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기회라고 생각되는 필링이 오는 순간 과감히 그리고 재빨리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 머뭇거리다가는 놓치기 십상이다. 기회의 문은 밀어야 열린다(The door of opportunity is opened by pushing). 완벽만을 생각하며 계획표만 끝임 없이 '새로 고침'한다면 우물쭈물하다가 중요한 것들을 모두 놓치게 될 것이다.

매일 새 출발하는 마음을 갖는 리더가 되라. 월초에는 결심하고 월말에는 결산하라.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라. 넘어지면 툭툭 털고 일어나라. 계획된 길 외에 또 다른 길도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실행 가능한 것으로 바꿔라.

마음과 생각이 왜 반복해서 흔들리는 것일까?

먼저 인간의 깊은 무의식 속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불안의 뿌리는 죽

각이 왜 반복해서 흔들리는 것일까?

흔들리지 않는 내면세계를 소유한 리더가 되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7)는 말이 등장한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말은 우리의 내면세계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마음'은 심장과 똑같은 단어이다. 고대인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리가 있는 생각이야. 고통스런 일을 당하면 심장이 뛰고 답답해진다. '생각'은 인간의 의식을 감당하는 요소이다.

생각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지렛대이고,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세계관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리더들이 생각을 통해 바른 인생관을 갖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면 그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기 바란다.

sondongwon@gmail.com

영성칼럼

이희령 사모

(프린스턴한국교회)



하나님의 평생 동행 예배자가 최상의 성공인생-솔로몬 묵상(4)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누릴 것이 없도록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생애의 원도 없이 누리다 간 인간 솔로몬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인간 모두가 바라는 모든 것을 소유해본 최상의 인간이었습니다. 다 해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그저 그래도 여호와의 경외함이 인간됨을 누리는 최상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솔로몬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고난도 어떤 일말의 고민도 없이 주어진 행복이 그저 계획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꾸며놓은 인조 정원을 바라보는 그런 기분입니다. 세계 최상의 정원사가 최고의 자료로 꾸며 놓는다 해도 하나님의 자연스레 창조하신 자연미에 감히 게임이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동행 없는 영광은 속이 빈 허풍선이 영광입니다. 그리고 보면 너무도 오랜 세월을 성공 목회하는 헛된 이상 숭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주위를 보며 자신만이 실패한 처진 인생인 것처럼 좌절하고 속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히 보기 좋으셨고 힘들고 고달파도 주님의 손길에 다듬어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해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을 것인지 말이지요. 주님, 당신은 내가 당신 가까이 가는 것을 기쁘다하시는데 나는 내가 보기에 흠족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토록 오래 쓴 마음가운데 속고 살았으니까요. 비록 내 손에 쥐어진 것에는 크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제의 어려웠던 시절로 인해 생명주신 주님-. 주님의 깊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 찬송하도록 은혜로의 눈이 떠진 것이 너무도 큰 영광입니다.

못난 것을 어두움의 길에서 구원하시고 밖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열심으로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불러내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며, 안으로 주님의 자녀로 함당치 못한 성품들을 불같은 연단가운데 녹여내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나라로 빚어내시어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주님의 만지시는 그 손길을 흠모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코람 데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감인 인간 최상의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 나는 주님의 뿔라! 주님을 누리는 신부들이 최대 영광입니다. 이제 제게 임한 그 엄청난 은혜를 어찌 혼자만 가지고 누리리이까?

어두운 길에서 불러내어 이 기이한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주님을 섬기는 길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상 숭배의 약한 길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주님을 구하여 죄사함 받고 고침을 받도록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널리 선전 하리이다. 전심으로 주의 길을 따르리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저의 결단 기도를 이루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heelenlee55@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3>남가주든든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facebook.com/lscsa</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목숨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금요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공동)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www.youngnak.com</p>	<h3>나성영락교회</h3>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천년)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h3>나성제일교회</h3> <p>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8: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3>나침반교회</h3> <p>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부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h3>베델한국교회</h3> <p>담임목사: 김한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h@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h3>LA 복음연합감리교회</h3> <p>담임목사: 이영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p> <p>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St., LA, CA 90019</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3>세계소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요셉선교회</h3> <p>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p>	<h3>얼빈인침례교회</h3> <p>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남)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수요예배: 오후 7:3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h3>윌셔크리스천교회</h3> <p>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학교: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h3>은혜한국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p> <p>www.gracemc.com Tel: (714)446-6207,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Ct., Fullerton, CA 92633</p>	<h3>주님세운교회</h3>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문)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경대방배: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church.com</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lc.org</p>	<h3>좋은미교회</h3> <p>담임목사: 신현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문)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6:00(토)</p> <p>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nerstonech.com / e-mail: pastor@iacor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렌스주교회</h3>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문, 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문) 찬양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encech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연합의 비밀



여승훈 목사

최근 한국 정치권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통합"이다. 그런데 통합이란 단어를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듣고 있는 것 같다. 쉽게 통합이 해체되기도 하고 쉽게 다시 재조직되기도 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고 실망스러워 한다. 필자는 질문을 던져본다. 왜 그토록 자주 해체와 조직을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 무엇 때문일까? 아마 포장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포장은 통합인데 내용은 각각의 정치적 계산이 다르기 때문이다. 포장의 효과는 포장지를 걷어낼 때까지

유효하다. 포장지를 걷어내면 그때 속에 있는 내용이 하나씩 나오게 된다. 서로에게서 각각 다른 내용이 확인될 때 또다시 해체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포장지를 걷어낸 후 동시에 해체가 시작되는 셈이다. 그래서 통합이 쉽게 조직되기도 하고 쉽게 해체되기도 하는 것이다. 나름대로 한국 사회의 지성층에 속한 정치권이 그런 단순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의 관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비록 세상에서는 뛰어난 지성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유치원생이 유치원 놀이를 하는듯한 유치한 논리에 함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통합이라는 길포장만으로는 결코 통합의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 포장된 박스 안에 내용물이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포장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통합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는데 통합이란 포장으로 장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늬만 통합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통합이라는 단어보다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연합을 이루는 내용물

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밝히 드러낸 말씀이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2:10).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있던 교회로서 서로 다른 사상과 다른 문화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양자 간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연합을 이루는 유일한 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증거 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안에서"이다. 그리스도안에서 라는 말을 함축하여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같은 고백을 하며 그리스도교에서 행하신 심자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통치하심에 대한 같은 고백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를 말한다. 연합의 열매는 그리스도께 대한 충만성 여부가 결정짓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 대한 충만함의 정도를 가늠해 보면 내일의 연합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무의 열매는 나무의 뿌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나

무뿌리가 건강하여서 충분한 영양분을 나무에 공급해주게 될 때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한 가지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열매 맺는 자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점점 채워져 가는 것을 서로에게서 볼 수 있게 될 때 그곳에는 성령께서 맺게 해 주시는 연합의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성분으로 점점 채워져 갈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다. 그리스도의 성분이 아닌 우리의 모난 천성적인 성품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떨어져 나간 우리의 모난 천성적인 성품의 자리에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 안에서도 마치 정치권과 같은 연합 운동(movement)을 벌이는 경우들을 종종 보고 있다. 그

러나 기독교의 연합은 절대 운동(movement)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기독교의 연합을 운동(movement)으로 추진한다면 잠깐은 운동(movement)의 효과로 들뜨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연합이 깨어지는 소리를 더욱 크게 듣게 될 것이다. 결국 연합의 비밀은 어떤 "movement"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진 사람들의 거룩한 변화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연합의 비밀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 안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어떤 장소이든지 참된 연합을 이루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안에서 통일"로 말미암는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구성원 간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변화에는 성격 차이를 뛰어넘게 하고, 사상의 차이를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5주 과정 완료...장기 14명 등 총 16명

GMS 미주OMTC 5기 선교사훈련 수료식과 임명식

2018년 상반기 GMS(Global Mission Society) 소속 장기 선교사 14명이 미주 OMTC 훈련원을 통해 탄생했다.

GMS 미주 OMTC는 제 5기 선교사 훈련 5주 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8일 오후 3시 GMS 선교사 임명식을 가졌다.

GP센터(Anaheim) 예배실에서 거행된 임명식에는 한국 GMS 본부 김찬곤 이사장, 조용성 GMS 선교총무 그리고 미주 OMTC 이사회 이상돈 서기, 문상무 총무, 민찬기 회계, 조동원 이사, 정영기 이사가 참석했고, 미주 지역에서 미주서부 노회 박종대 노회장과 GMS미주지부 김영록 지부장과 임원들이 참석해 말씀과 축사 및 격려사로 신임 선교사들을 축하하고 용기를 북돋아줬다.

조용성 총무 선교사는 창세기 5장 24절을 본문으로 "에녹을 본받는 믿음을 소유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번 훈련에는 총 16명의 사망자들이 참여했으며 애너하임 GP(Global Partner) 센터에서 3주 동안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집중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강사로는 GMS 김찬곤 이사



GMS 미주 OMTC 5기 선교사 훈련 수료식과 임명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장, GMS 조용성 선교총무, 미주 OMTC 이사 이상돈 목사, 문상무 목사, 민찬기 목사, 조동원 목사, 정영기 목사와 OMTC 훈련원장 이병구 선교사를 포함, 풀러신학대학원의 박기호 교수, SOMA대학 총장 이광길 교수, 이상훈 교수, 그레이스신학교 박시경 교수, GMU 조나단강 교수, 현 KWMC 사무총장인 이승중 목사, GP 미주대표 김승봉 선교사, 미주 OM대표 김일권 선교사, 미주 고신선교회 대표 김해진 선교사, GMS 미주지부장 김영록 선교사, GMS 중미지부장 김선근 선교사, 김기동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선교담당 이근 목사 등 20여 명이 예비선교사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GMS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이 세운 글로벌 선교단체이며 현재 98개국에 2,543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 최대의 선교단체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엔 장기 선교사 임명장을 수여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미주: 이상훈, 안양, 김요한, 전대보라, 최인희, 송민주 △캐나다: 이승훈, 권진, 이상열 △과테말라: 이종호, 유혜련, 김대섭 △아이티: 정광 △장기훈련: 수료자: 이열 △단기훈련: 장재윤, 윤정산 선교사. (기사제공: GMS 미주 OMTC훈련원)



민중기 목사 '목회세습, 하늘의 법정에 세우라'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원인은 출판기념회전 열린 저자 민중기 목사가 사인회에서 민 목사가 교인들에게 사인한 책을 증정하는 모습

민중기 목사 '목회세습...' 출판기념회

'세습에 관한 정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생각'

충현선교회 민중기 담임목사의 저서 '목회세습, 하늘의 법정에 세우라' 출판기념회가 18일 오후 2시 본 교회 벨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민중기 목사는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운을 뗀 후 "15년 만에 갖는 안식년에 청교도 학자인 리처드 뱁스터에 대해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월19일 명성교회 세습결정 소식을 듣고 큰 분노가 생겼고 주제를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 목사는 "20년 전 서울 충현교회 출석 당시 일어났던 세습과정과 결과가 생각났으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게 돼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세습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같아서 이 책을 쓰게 됐다. 책이 나올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인철 장로(충현선교회 당회 서기) 사회로 시작된 출판행사는 황혜경 집사가 축가를 불렀으며 김충한 목사(KAPC서남노회장)와 금병달 목사(울목회 회장)가 축사하고 손봉호 교수, 배용하 목사, 권연경 목사, 박득훈 목사가 영상으로 축사했다. 이어 박문규 학장(캘리포니아인턴셔널대학교)과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학교)이 서평했으며 민중기 목사가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출판행사가 열리기전 저자 사인회를 가졌으며, 사인회를 마친 후에 열린 감사예배는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담임) 인도로 시작, 손수용 장로(제41대 남가주교회 이사장)가 기도하고 아슈레이 남성중창단이 특송했다. 이어 송정명 목사(미주평안교회 원로)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 하라"(마5:37)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인물동정

림택권 목사 샬롯으로 이주



본지가 주 최했던 세계 한인목회자 세미나의 단골 강사였던 림택권 목사가 샬롯으로 이주한다. 3월 11일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림 목사의 근황에 대해 나성균 목사가 소식을 전해왔다.

림택권 목사는 비교적 일찍 도미해 유학하고 시카고에서 이민 목회를 시작했으며, 샬롯장로교회와 동일교단인 "PCA 교단의 한인 원로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 교회의 중진"이라고 소개하고, 특히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를 시무할 때는 한인사회만 아니라 미국사회에서도 PCA 노회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베테랑 목회자로, 연합교회 시무 후 한국의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의 총장으로 초빙받아 오랫동안 학교를 잘 섬김으로 아시아 선교에도 큰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필그림교회 교단탈퇴 문제 밝혀

PCUSA 동부한미노회 기자회견, 동성에 반대 재확인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노회장 장신욱 장로)가 2월 12일 오후 7시30분 뉴저지 임마누엘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의 교단탈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동부한미노회 측은 이날 교단탈퇴에 대한 여러 쟁점들이 잘못된 정보와 함께 이슈화가 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양춘길 목사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으나 응답이 없기에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동부한미노회 노회장과 사무총장, 필그림교회 행정 전권위원회(AC) 위원들, 기타 노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회장 장신욱 장로가 회견을 시작하며 한 기조발언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동 노회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죄로 규정한다는 것과 둘째는 필그림교회가 '은혜로운 결별정책'에 의해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나가지 못한 책임은 양춘길 목사와 필그림교회 리더십에 있다는 것.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부한미노회와 회원교회들은 2014년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하



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죄로 규정한다 △목사는 동성결혼의 집례를 거부하고, 당회는 동성 결혼을 위해 교회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미국장로교는 노회중심의 정치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운영되는 교단으로 노회뿐만 아니라 개교회가 신앙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노회측은 노회 리더십과 양춘길 목사와 오간 여러 대화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양 목사가 양측 간에 신뢰를 깨는 여러 일들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신앙양심을 지키기 위해 교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1200만불 짜리 건물을 두고 교단을 나갔다고 포장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갈 때 까지 다 가고 더 갈 수 없기에 손을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상법정에서 재판과 교회를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회측은 기자회견에 필그림교회 교단탈퇴 일정표와 교단탈퇴 과정에서 오간 각종 자료들을 제공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GBC 자두와 함께하는 블레싱 콘서트에서 자두 사모가 찬양하고 있다

"김밥의 가수에서 목사의 아내로 부르신 이야기"

GBC, '자두와 함께하는 블레싱 콘서트' 성황

GBC(사장 이영선 목사)는 '자두와 함께하는 블레싱 콘서트'를 '김밥의 가수에서 목사의 아내로 부르신 이야기'라는 주제로 14일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16일 에브라임교회(담임 최홍주 목사), 17일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18일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각각 개최했다.

14일 첫날 콘서트는 자두 사모가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와 찬양을 불렀다. 자두 사모는 "이번 콘서트가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예기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가수활동하면서 법적인 문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 세상은 계속 경쟁해야 하고 제 연약함을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



멕시코 티화나 UABC대학 설립행사에서 한국어반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은혜한국어재단 멕시코 티화나 UABC대학 설립 행사 가져

은혜한국어재단(대표 홍연숙 교수)은 멕시코 티화나 UABC대학에서 설립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설을 맞아 멕시코 UABC대학 티화나 캠퍼스와 엔세나다 캠퍼스의 한국어교사와 한국어반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군만두, 산적, 한과 등 한국음식 알리기, 부채와 수묵화 그리기, 세배하는 시간 등을 가졌다. (기사제공: 은혜한국어재단)

동부교계 기사판



‘목회자와 교회사역을 위한 컴퓨터 교육’

뉴욕교협 산하 뉴욕청소년센터가 주최하는 ‘목회자와 교회사역을 위한 컴퓨터 교육’이 3월 5일부터 시작된다. 기초반과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뉘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11시, 11시 30분-12시30분(월요일만), 오후 8-9시로 시간 순서대로 강의한다. 기초반은 컴퓨터 기본과 스마트폰과 태블릿 기본을, 중급반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기본과 선교파일과 문서 편집관리,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고급반은 일러스트와 포토샵 기본과 홈페이지 이미지, 이미지 합성과 편집, 교회 디자인 등에 대해 배운다. 수업료는 기초반과 중급반은 한달에 50달러, 고급반은 100달러다.

▲문의: (718)279-1313, (212)464-7812 김준현 사무총장

뉴저지한인목사회 개척교회 세미나

제 8회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박근재 목사)가 주최하는 개척교회 세미나가 2월 26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길교회 선교관(432 Bergen Blvd. Ridgefield)에서 열린다. 세미나 제목은 ‘개척교회 세미나’ 부제는 ‘너 진짜 목사냐?’, 강사는 순형식 목사(‘너 진짜 목사냐’의 저자, 버지니아 필그림교회 담임)로 등록비는 무료다. 수강신청은 뉴저지한인목사회 이메일(njkaca@gmail.com)이나 교육분과 한동원 목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등록마감은 2월 22일. 점심식사와 책(‘너 진짜 목사냐’)이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201)519-8258

뉴욕실버선교학교 개강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26기 훈련이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에 걸쳐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식사를 하고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뉴욕늘기쁨교회(담임 김홍석 목사). 등록비는 100달러. 한편 단기선교는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과테말라로 예정돼 있다.

▲문의: (917)963-9356

한어담당 부목사 및 어린이 담당 사역자 청빙

워싱턴지구총교회가 한어담당 부목사 및 어린이 담당 사역자를 청빙한다. 한어담당 부목사 지원자격은 남침례교단(SBC)에서 인정하는 신학교(M.Div)를 졸업하고 미국 취업이 가능한 자로 이력서, 신앙간증문, 추천서 2통(전 사역자 사역자) 및 추천자 연락처, 최근 6개월 내 선교 동영상 필요하다. 어린이 사역자는 이력서(가족사진 포함), 신앙간증문, 사역철학 및 비전서, 추천서 2통, 선교영상 1개가 필요하다. 서류마감은 3월 4일.

▲문의: ikhobae@gmail.com 배익호 목사

뉴욕나눔의집 조찬대접...후원금 받아

뉴욕장로연합회 제 56차 목요조찬기도회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김영호 장로)가 지난 15일 오전 8시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서 제 56차 목요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장로연합회는 이날 나눔의집에 후원금 3백 달러 전달했다.

이날 예배는 박성원 장로의 인도로 대표기도 백달영 장로, 설교 박성원 목사(“사랑의 종을 울려라”, 고전13:1-13), 합심기도, 헌금특송 장로중창단(인도 우화선 장로), 헌금기도 송윤섭 장로, 인사 및 광고 김영호 장로, 축도 박성원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특별 합심기도는 △뉴욕장

로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김영호 장로 인도) △뉴욕나눔의집 흠리스 사역을 위하여(우화선 장로 인도) △미국과 고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이계훈 장로 인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어 이보춘 장로의 식사기도 후 나눔의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떡국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친교 시간을 가졌다.

회장 김영호 장로는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소외되고 갈 곳 없어 방황하는 노숙자를 위한 사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후원금을 전달한다”고 광고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경건훈련...이웃돕기, 성경읽기, 금식

퀸즈장로교회 등 사순절 새벽기도회 시작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지난 14일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했다. 뉴욕 일원의 크고 작은 한인 교회들도 사순절 특색을 시작하며 성도들과 경건과 순종의 믿음을 더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특히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

국 목사)는 2월 19일부터 3월 31일 까지 매일 새벽 5시45분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를 갖는다.

이번에 김성국 담임목사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라는 주제로 6주에 걸쳐 총 36번의 설교를 한다.

1주는 “장망성에서 좁은 문까지”, 2주 “좁은 문에서 십자가까지”, 3주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집까지”, 4주 “아름다운 집에서 헛된 도시까지”, 5주 “헛된 도시에서 기쁨의 성까지”, 6주 “기쁨의 성에서 천성까지”라는 주제 하에 각각 6번의 설교를 통해 ‘21세기 천로역정’의 길을 떠난다.

첫날 김 목사는 “장망성의 무거운 짐을 진 자”(사19:17-18, 시 38:4)라는 제목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천로역정의 첫 발걸음을 땀

한편 동전 모으기로 이웃돕기를 계획한 교회들도 있다. 뉴욕감리교회(담임 강원근 목사)는 매일 25센트씩 40일간 10달러를 모으는 “사순절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통해 결식아동과 지역사회 이웃돕기를 계획하고 있다.

뉴저지 베다니연합감리교회(담임 이기성 목사)도 사순절 동안 사랑과 정성을 담은 저금통으로 기금 모금을 한다.

이외에 사순절 성경읽기, 성경공부, 성경필사 등을 특별히 계획한 교회들도 있다.

또 교인들이 돌아가며 릴레이로 금식기도를 하기도 한다. 인터넷과 SNS 등 미디어 중독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는 현대에서는 단순히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 외에 미디어 금식도 증가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강릉반석교회에서 올림픽전야제 순회공연을 마치고 출연진들이 기념촬영 했다.

평창 올림픽전야제 순회공연

한미 솔리스트앙상블과 CBSN올림픽 합창단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한미 솔리스트앙상블과 CBSN올림픽 합창단은 8일, 강릉반석교회(담임 서석근 목사)에서 올림픽전야제 순회공연을 성황리에 열었다.

CBSN올림픽합창단은 이날 ‘주님 나라 이루어소서’ ‘축복하노라’ ‘Now Sing We Joyfully unto God’ ‘주님’ ‘시편 20편’ 등의 합창곡을 찬양했다.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로 트럼펫대통령 취임 축하무대에 섰던 로즈장은 ‘도라지’ ‘Amazing Grace’ ‘You raise me up’ 등의 곡을 선사했다. 목관악기의 달인 제시유는 플루트로 ‘사명’을 연주하고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Swing Gospel’을 연주하며 청중들과 함께 호흡했다.

목사로서 전국노래자랑 연말대상 수상자가 된 화제의 인물 김태군 목사(밀양별빛교회 담임)는 ‘항수’와 ‘이 세상 지붕 동안에’를 감동 있게 노래해 청중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강릉의 성악전공 지휘자들이 모여 구성된 TG남성합창단은 ‘십자가’와 ‘Funiculi Funicula’를 불러 청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냈고 반석감리교회 찬양대는 ‘은혜 아니면’을 은혜롭게 찬양했다. CBSN올림픽합창단(솔로 로즈장)이 영어가사로 된 ‘주기도문’을 부르며 평창올림픽 강릉전야제 공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당초 선교올림픽을 지향하며 공연에 참가한 CBSN올림픽 찬양선교단원들은 인파가 많이 모이는 강릉역과 안목 카페거리 두 곳에서 찬양하고 영어와 한글로 된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다. 대형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하고 있는 이들 앙상블과 합창단은 서울의 광림교회 장현홍 공연을 비롯해 인천영광교회, 울산화봉교회, 밀양별빛교회 등에서 수준 있는 공연을 펼쳤다.

(기사제공: CBSN올림픽 찬양선교단)



퀸즈장로교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에서 김성국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지구총교회와 때밀리터치가 주관한 ‘사모들의 행복축제’ 참석자들이 강사와 함께 기념촬영 했다.

제 3회 사모들의 행복축제 성료

강사 진재혁 목사, 정정숙 박사, 이정애 사모

제 3회 ‘사모들의 행복축제’가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렸다. 한국 지구총교회(담임 진재혁 목사)와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 주관으로 여인 이 행사에는 약 40여 명의 사모들이 참석했다.

주 강사로는 진재혁 목사와 정정숙 박사 그리고 이정애 사모(내리연합감리교회).

사모들의 행사 등록이 시작되면서, 한국 지구총교회에서 온 2명의 헤어 디자이너들이 사모들에게 무료로 헤어 커트와 염색 등을 해줬다.

사모들을 위한 진재혁 목사의 감동적인 설교가 있었으며 정정숙 원

장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이라는 주제 강의를 인도했다. 이정애 사모는 “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 살지 말자”, “사모가 아닌 나로 살자”는 내용으로 강의했다.

이날 사모들은 워십 댄스(Worship Dance), 그룹 댄스 콘테스트(Group Dance Contest), 롤프레이 콘테스트(Group Role Play Contest) 등을 통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워십과 소그룹 모임 등을 통해 사모들의 아픔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 위로와 격려,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정리: 유원정 기자)

축하합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명성교회의 제 2대 담임 목사로 김하나 목사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뉴욕과 세계의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한 명성 교회의 선교적 역할에 감사 드립니다. 이제 사도행전 9:31 말씀대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이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통일 대한민국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성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간구 합니다.

2018년 2월 16일 무술년 새해

- 박희소 목사 뉴욕동부교회 원로, 뉴욕교협증경 회장
- 허 걸 목사 뉴욕한신 침례 교회 원로, 한미국가기도회 회장
- 이병홍 목사 뉴욕새가나안 교회 담임, 뉴욕교협 증경 회장
- 장석진 목사 뉴욕성결교회 원로, 뉴욕교협 증경 회장
- 송병기 목사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 해외한인장로회 증경 총회장
- 김승희 목사 뉴욕초대교회 담임, 뉴욕교협증경 회장
- 이재덕 목사 뉴욕사랑의 교회 담임, 뉴욕교협증경 회장
- 신현택 목사 뉴욕성신교회 담임, 뉴욕교협증경회장
- 김상태 목사 주님의교회, 뉴욕 목사회직전회장

- 안창의 목사 하크네시아 미국장로교회 은퇴, 뉴욕교협 증경 회장
- 박태규 목사 뉴욕 새침교회 담임, 뉴욕신학교협의회 회장
- 최용렬 목사 후러싱 나사렛교회 원로, 뉴욕교협 증경 회장
- 허윤준 목사 뉴욕 새생명 장로교회, 뉴욕 전도 협회 증경회장
- 김홍석 목사 뉴욕늘기쁨교회, 뉴욕교협직전 회장
- 이은수 목사 뉴욕큰샘 교회 담임
- 송일권 목사 뉴욕큰은혜교회 담임
- 김원기 목사 뉴욕베데스다교회 원로, Church of God 뉴욕 지방 감독 (이상 무순)

한인 포스퀘어교회 2018 연합 컨퍼런스

강사에 김벌리 디어맨, 정범수, 박정기 목사

한인 포스퀘어교회 2018 연합 컨퍼런스가 17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더락한인교회(담임 박정기 목사)에서 열렸다.

정범수 목사(새소망교회)의 사회와 빛나는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저녁 컨퍼런스는 제리 디어맨 목사(더락교회 담임)가 환영사를 했으며 김벌리 디어맨 목사(더락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김벌리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어 목회자로 삼으셨다. 사역을 하면서 3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됐다"며 "첫째, 마가복음 5장의 오병이어 사건이다. 당시 제자들은 음식이 없어서 모여든 사람들을 돌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앓게 하시고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셨다.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가 있음을 아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다. 평범한 인간에게는 부족한 것



한인 포스퀘어 교회 2018 연합 컨퍼런스에서 더락교회 담임인 김벌리 디어맨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충분하셨다.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볼 때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해 풍족하게 하신다"고 말했다.

김벌리 목사는 "둘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길을 걷고 있을 때 발을 지나가신다. 그리고 추수가 준비된 것을 보라고 하셨

다"며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때문에 교회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



박트리오(바이올린 박윤재, 피아노 박선규, 첼로 박수정) 결성 20주년 기념 연주회에서 박트리오와 이날 찬조출연한 소울스 오브 서울 합창단이 함께 공연을 한 뒤 청중들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박트리오 20주년 기념연주회 성황

Souls of Seoul, 천재상, 김경선 등 찬조출연

박트리오(바이올린 박윤재, 피아노 박선규, 첼로 박수정) 결성 20주년 기념 연주회가 18일 오후 6시30분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영김 연방하원의원 후보이자 전 가주하원의원의 축하인사로 시작된 연주회는 박트리오가 무대에 올라 '승전가', '사랑의 기쁨', '아리랑 판타지', 'Por Una Cabeza' 등을 연주했다.

또한 피아니스트 아이린박이 박트리오와 함께 B Rosstte(드라마 '하얀거탑' OST)를 연주했으며 Radetzky March Op.228을 연주할 때는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함께하기도 했다.

이날 연주회는 Souls of Seoul 합창단이 찬조 출연해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였으며 해금연주자 천재상(국악양상발 '우드노트' 리더)과 박트리오의 어머니 김경선 교수(국립군산대학교 명예교수, 한국 피아노학회 이사)가 찬조 출연해 이날 연주회를 빛냈다.

(박준호 기자)

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줄어든 걸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때가 바로 추수할 때임을 알아야 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9장에 바울이 원했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바울은 진리에 대해 양보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접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자였다"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됐다면 우리의 사역과 방법을 바꿀 수도 있다. 그것은 한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전통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번째 강의는 정범수 목사가 '질북(계1:1-3)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며 두 번째 강의는 박정기 목사가 '견고한 삶 세우기'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회 게시판



한인기독교상담소 부모학교 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 부설 한인기독교상담소(KACC, 소장 김희자)가 3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LA 상담소(500 Shatto Pl. #608)와 오렌지카운티 부에나비사 상담소(7342 OrangethorpeAve. #A103) 두 곳에서 10주 과정으로 부모학교 세미나를 실시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당신은 부모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세미나에서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간의 세대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자녀들을 잘 이해하며 소통하는 기술들을 배우게 된다. 등록비는 100달러.

▲문의: (657)529-1133

세계기도일 예배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지부(회장 최순자 권사)는 2018 세계기도일 예배를 3월 3일(토) 오전 10시 동양선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갖는다.

▲문의: (714)398-7471

죽음준비 전문가 교육 및 소망포럼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죽음준비 전문가 교육을 22일과 23일 오전 9시에 사이프레스에 위치한 소망소사이어티(5836 Corporate Ave #110)에서 갖는다. 등록비는 250달러. 또 24일(토) 오전 10시30분, 배틀한인교회 비전센터(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제4회 소망 포럼을 갖는다.

▲문의: (562)977-4580

플러신학대학원 한국어학부 개원식

플러신학대학원(총장 마크 래버튼 박사) 한국어학부 개원식이 26일(월) 오후 1시40분 본교 Travis(대강당)에서 열린다.

▲문의: (626)396-6011

CRC CLA Classis

북미주개혁교회(CRC) 교단 노회모임이 27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포감사선교회(담임 최경욱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23)225-9191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 말씀묵상 컨퍼런스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는 말씀묵상 컨퍼런스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3월 3일(토)과 4일(주일)에 갖는다. 강사는 류계환 목사(UMC한인총회 선교총무)이며 일정은 3일 오전 6시(말씀집회), 오전 7시30분, 오전 8시(이상 세미나), 4일 오전 8시와 11시15분(말씀집회), 오전 9시45분, 오후 1시15분(이상 세미나).

▲문의: (858)279-9191



김완중 LA총영사가 라스베이거스 지역을 방문하여 동포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순회일정을 소화했다.

김완중 LA총영사 라스베이거스 순회

김완중 LA총영사는 12일과 13일 양일간 라스베이거스 지역을 방문해 동포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순회일정을 소화했다.

12일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한국전 참전비 건립 관련 협의 및 라스베이거스 지역 한글학교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고, 13일에는 당관의 순회일정과 동행해 협력단체와 민원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순회영

사 서비스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13일 오후에는 한인 입양아 6명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인 입양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한인 입양아, 특히 미국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정책을 설명했다.

(기사제공: LA총영사관)



한인가정상담소와뱅크오브호프가 한인타운에 있는 OMC유치원_킨더가튼을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정교육을 실시하였다

한인가정상담소와뱅크오브호프, 재정교육

OMC 유치원&킨더가튼 아이들에게

한인가정상담소와뱅크오브호프가 한국의 명절 설(16일)을 앞두고 한인 타운에 있는 OMC 유치원&킨더가튼을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강의와 액티비티로 나눠 진행됐으며 재정교육 강의 시간에 학생들은 한국의 명절인 설에 맞는 세뱃돈의 현명한 사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뱅크오브호프 직원들은 '돈은 지출(Spend), 저축(Save), 기부(Give)인 3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학생들은 저축 체험을 해보기 위해 모의 은행으로 만들어진 강의실로 이동, 선생님들에게 세뱃돈을 한 뒤 세뱃돈을 받아 은행에 입금하고, 저축하는 실습을 했다.

또 뱅크오브호프 직원들과 함께 페지 저금통을 만들어 저축의 중요

성을 되새겨 보는 시간도 가졌다. 뱅크오브호프는 가정에서도 재정교육이 함께 이뤄지길 바라며 각 학생들에게 세뱃돈 3달러를 전달했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징조 소장은 "설을 앞두고 뱅크오브호프와 함께 커뮤니티 학생들을 위해 재정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며 "아이들이 돈을 지출, 저축, 기부 등 3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혜나 원장(OMC유치원)은 "한인가정상담소와뱅크오브호프에서 나와서 지출, 저축, 기부에 대해 강의했는데 아이들이 강의를 들은 것보다 그친 것이 아니라 저금통 만들고 은행실습을 통해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찬양사역자 허지에 자매 '우리 약속해' 음원 출시

찬양사역자 허지에 자매의 축복송 '우리 약속해(Our Promise)' 음원이 최근 출시됐다.

허지에 자매는 "감사함으로 결혼을 축복하는 노래를 나눠 드리게 됐다"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불렀으며 가사 중 '기억해요 지금이 감격 늘 간직하면서 그분의 마음 나눠요 그분의 사랑 나눠요'라는 노래처럼 주님의 마음이 나눠지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열렸던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출신의 허지에 자매의 '우리 약속해'는 'Where is my Man'과 '주님 말씀만이'에 이은 세 번째 음원이며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VKEBbUx_A8&feature=youtu.be)를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음원사이트(<https://store.cdbaby.com/cd/geeahuh4>)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부러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전 8:30 성령찬양: 오전 10:00(화,토)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여)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b.org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lee@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준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학교: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787-1470 45-50 162 St, #2F1,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영여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학교: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http://www.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kyang.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3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www.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1:00 성령찬양공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일학교: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58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분 주일2부 오전 10: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성교회 담임목사: 이규분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2부예배: 오전 6:00 금요찬양: 오후 5:00 영여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수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학교: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퀸즈한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찬양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여)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여)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6: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멕시코 번식 센터 교우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층 4층까지 설교) Tel: (52)323-3507-4111 E-mail: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ajara MEX(멕시코)

“중구난방 통일선교 전략 일원화하자”

제1회 평화한국 통일 콜로키움, 통일선교단체 관계자 12명 참석

한국교회의 중구난방식 통일선교 전략을 일원화하기 위해 주요 통일선교단체 및 교계 북한아카데미 대표들이 머리를 맞댔다.

(세평화한국대표 허문영)은 19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통일선교 교육 과거와 미래: 방향과 방법’ 주제로 제1회 평화한국 통일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통일선교단체가 가칭 ‘통일선교교육협의회’를 결성해 일관된 통일선교 전략을 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엔 예수전도단 북한선교전략학교, 하나코리아새, NK비전센터 등 통일선교단체 및 북한아카데미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북한선교교육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발표한 예수전도단 북한

선교전략학교장 조요셉 목사는 이념 편향적이고 일관성 없는 한국교회 통일선교전략을 지적했다. 조 목사는 “개교회나 통일선교단체가 제각각 북한·통일선교를 진행해 이념별로 통일선교전략이 나뉘어 효과는 미미한 채 인적·물적 손실만 과다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운을 폈다. 이어 “이는 한국교회가 북한사회의 특성을 잘 모른 채 몰랑 위주의 선교를 펼쳤기 때문”이라며 “북한·통일선교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북한아카데미 교과과정을 통일해 통일선교 전략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허문영 대표는 “새로운 통일정책 통일 3.0” 발제에서 한국교회가 추

구해야 할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허 대표는 “한국교회는 무력이 아닌 평화로, 일방적 편입이 아닌 쌍방 합의를 거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며 “‘선 국민통합 후 국가통일’ 방식을 적극 모색해 ‘성경적 영성대국’을 이루는 데 그리스도인이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완성해 한반도 및 세계질서를 평화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으로 만들자”며 “이를 위해 통일선교단체가 국가 안보, 대북관계 및 주변국 외교, 빈부격차 해결 등 국가 당면 과제를 위해 뜻 모은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협의체 정체성과 운영 방안, 통일선교 교육 방향 및 재원마련에 관해 토론하며 의견을 좁혀나갔다. 협의체는 추후 모임을 열고 북한 재건과 북한 복음화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성범죄’ 정명석 만기출소…신도들 여전히 ‘송배’

기독교복음선교회(JMS)내 교주 우상화 실태

18일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 앞 수심 명이 물려있는 정문 앞은 오전 9시가 되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간치상과 중장기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이 만기 출소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정씨는 언론 취재를 피해 미리 대기 중이던 외제 승용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정씨는 현재 충남 금산 월명동 JMS 본부로 이동해 집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명동 입구엔 ‘정명석 총재님 고향에 돌아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정씨는 1999년 도괴생활을 시작해 2009년부터 수감됐다. 20년간의 교주 공백에도 JMS 조직이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일격 관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 해외 도피 기간 인터넷

설교와 전화 상담, 국내 신도 해외 초청행사 등을 이어오면서 조직을 유지했다. 이어 10년간의 수감생활 때는 점진적인 통한 설교문 전달, 문서 및 구두지시, 2인자인 정조은(본명 김지선)씨를 통한 대리 관리 체제로 조직을 추슬렀다.

JMS의 초창기 멤버로 30여년간 간부생활을 했던 김경천(58) 목사는 19일 “정명석은 해외생활을 시작한 1999년부터 원격으로 조직을 운영했으며, 2006년쯤부터 정조은을 ‘성령분체(靈靈分體)’ ‘성령상징체’로 신격화해 교주의 빈자리를 대신했다”고 설명했다.

허무맹랑한 교리와 직통 계시에 의한 신비주의는 정씨를 우상화하는 핵심 요소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JMS 핵심 교리서 ‘실제 보는 강의안’에는 교주 정씨가 성자분체(聖子分體)로 묘사되며, 예수님과 동급 존재로 등장한다. 특히 예수님 자리에 정씨 그림을 그려 넣고 ‘보

낸 자를 통해 주님과 연결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친다.

JMS는 또 격월간 잡지인 ‘섬리역사’에서 정씨가 중국에서 수감되기 전 지인들과 식사한 장면을 ‘마지막 만찬’으로, 중국 공안에 잡히던 상황을 ‘은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노정’으로 묘사했다. 특히 대전교도소에서 글을 쓰거나 기도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넣고 ‘성자의 뜻을 진행한다’고 설명해 왔다.

JMS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 총재가 엄청난 자기 절제력으로 그 좁은 공간에서 10년을 견뎌냈다”면서 “정 총재의 부재에도 JMS가 견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뜻,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총재는 당분간 금산에서 머물며 몸을 추스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JMS가 ‘기독교’ ‘복음’ ‘선교회’ 등을 써가며 개신교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면서 “한국교계는 JMS가 교회와 전혀 관련 없는 사교(邪敎)집단이라는 사실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천지 내부교육 자료 보니

‘살인마 돈벌이 강제개종목사들을 고발합니다.’ 신천지에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기독교 이단상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기 위해 내세우는 자극적인 선전 문구다.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터무니없는 공세를 펼치는 것은 이단상담소가 교세 확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국민일보는 최근 소위 ‘강제개

종’을 잡는 게 모든 목사를 잡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신천지를 가장 위협하는 이단상담소를 공격하면 교계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영상에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가 “(이단상담소) 강제로 끌고 가 감금해 놓고, 이려고 돈 받고”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단상담소를 범죄 집단으로

를 강제개종이라고 주장했다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적이 있다. 2009년 9월 신천지 신도 일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이단상담소에서 ‘정신병원 감금, 폭행, 살인까지 몰고 가는 개종교육 중단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결국 예배를 방해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남 보성 모 교회 앞에서 2009년 11월 ‘살인마 가정파탄의

중방지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신천지 내부 자료를 입수해 이단상담소에 대해 어떻게 왜곡된 생각을 주입하는지 분석했다. 취재 결과 신천지는 이단상담소에 대한 적개심과 두려움을 신도들에게 심고, 상담을 권유하는 가족의 설득을 거짓으로 호도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신천지가 이단 상담을 비방하기 위해 만든 내부 영상에는 이들이 이단상담소를 ‘사탄’으로 규정해 신도들에게 공포심을 심는 장면이 나온다. 한 신천지 강사는 이단상담사들을 “마귀”라고 불렀다. 그는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의 역할은 말씀으로 마귀를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피연은 이단상담소를 비방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신천지 산하 단체다.

이 강사는 이어 “사탄의 본거지에 있는 강제개종목사들이(신천지에 관한) 나쁜 얘기를 전한다. 일반 목사들은 신천지를 잘 모르고 개종 목사들은 잘 아니

치부하고 상담을 상품화하는 곳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신천지는 이단상담소가 가정을 파괴한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내부교육용 파워포인트(PPT) 자료에는 오히려 그들이 신도들과 가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신천지는 이단상담 과정을 두고 “이것은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이 가족을 들어 우리(신천지)를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 싸움”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들은 “개종교육(이단상담)을 받으면 나(가족)도 신천지 공부를 해보겠다는 조건을 내세우거나 만약 개종교육을 받고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을 존중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여서 개종교육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신도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빼앗고 가족의 설득을 거짓말로 치부해 불신을 심고 있는 것이다.

신천지는 과거에도 이단상담

선교사들 “조선의 설날은 서양의 크리스마스”

구한말 파란눈에 비친 설 풍경

100여년 전 파란 눈의 선교사들에게 한국의 설날 풍경은 어떻게 비쳤을까. 한국 땅을 밝은 초창기 선교사들이 편지와 일기 등으로 남긴 문헌에는 서양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새해맞이 풍습이 낱설면서도 흥미롭게 묘사돼 있다. 미신적 요소로 느낀 선교사도 있다가 하면 설 명절 기간을 신앙 사경회로 활용했던 선교사들의 활동도 이채롭다.

“설날 아침 일찍 가족 수대로 대나무 국자를 사서 싹속에 넣는 풍습이 있는데, 이런 기정에 재물이 들어오라는 의미다. (음력) 1월 1일부터 사흘 동안 여성들은 거리에 나가기도 못한 채 집 안에 있는데, 이는 불운을 막기 위한 풍습으로 새해 예절이다…”

1900년대 초반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이 만든 잡지 ‘코리아 미션 필드’ 1909년 5월 15일자에 ‘한국의 새해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M M 알버슨 선교사가 쓴 글이다. 그는 말미에 “한국인들은 영(靈)의 세계에 살고 있다. 미신이 많다”고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선교사가 마주한 농촌의 이색 풍경도 묘사돼 있다. 1892년 1월 13일 사무엘 마펫(한국명 마포삼열) 선교사가 한국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였다. 당시 그가 남긴 편지에는 사람 모양의 벗집인형인 ‘제옹’이 묘사돼 있다.

“어떤 사람의 이름과 전년도에 지은 모든 죄를 적은 종이, 그리고 독특한 새해맞이 풍습이 낱설면서도 흥미롭게 묘사돼 있다. 미신적 요소로 느낀 선교사도 있다가 하면 설 명절 기간을 신앙 사경회로 활용했던 선교사들의 활동도 이채롭다.

“설날 아침 일찍 가족 수대로 대나무 국자를 사서 싹속에 넣는 풍습이 있는데, 이런 기정에 재물이 들어오라는 의미다. (음력) 1월 1일부터 사흘 동안 여성들은 거리에 나가기도 못한 채 집 안에 있는데, 이는 불운을 막기 위한 풍습으로 새해 예절이다…”

1900년대 초반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이 만든 잡지 ‘코리아 미션 필드’ 1909년 5월 15일자에 ‘한국의 새해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M M 알버슨 선교사가 쓴 글이다. 그는 말미에 “한국인들은 영(靈)의 세계에 살고 있다. 미신이 많다”고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선교사가 마주한 농촌의 이색 풍경도 묘사돼 있다. 1892년 1월 13일 사무엘 마펫(한국명 마포삼열) 선교사가 한국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설 맞아 교계·교회 다채로운 나눔 행사

설 명절을 맞아 소외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온정이 줄을 이었다. 쪽방촌 독거노인들을 비롯해 다문화 이주민, 탈북민 등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모임 등이 설 연휴 내내 이어졌다.

명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작동. 서울에서 가장 큰 쪽방촌이 형성된 이곳에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 회원교회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했다. 저마다 한과 박스를 나눠 들고 쪽방촌의 가파른 계단을 올랐다. 좁은 골목을 돌아 도착한 김문환(78) 할아버지의 집은 3.3㎡(1평)가 채 되지 않았다.

좁은 방은 온갖 잡동사니로 발디딜 틈도 없었다. 허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한 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전한 유민주(26·여)씨는 “추운 겨울에 난방도 되지 않는 방에서 지내시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면서 “항상 건강하시라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날 용산 성민교회와 함께 쪽방촌 심방에 나선 한교봉은 한과 700세트를 준비해 전달했다. 경기도 고양의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청년들도 선물 전달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앞서 이날 오전 동작동 쪽방촌 초입의 새꿈어린이공원에서 떡국 나눔 행사가 열렸다.

설을 맞아 쪽방촌 주민들에게 떡국과 내복, 양말 등 선물을 건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온정을 나누기 위한 취지에서다. 사랑의전국노인기독신우회와 한국기독실업인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엔 지난 10년 동안 무료급식을 이어온 전국 노인·노숙인 사랑연합회 회원들도 동참했다.

색소폰 연주에 맞춰 찬송가가 울려 퍼지자 노숙인 400여명이 금세 공원으로 모였다. 노숙인들은 손뼉을 치고 함께 찬양을 불렀다. 전국노인기독신우회 대표인 이강호 목사는 “설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복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며 “떡국을 먹는 이마다 생명과 영성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예배가 끝난 뒤 노숙인들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국을 함께 나눠들었다.

서울 동작구 불만동산교회(조요셉 목사)는 17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맞

예장합동 “통일운동·통일목회 확대”

통일준비위 “NGO 설립 북한동포 피부 닿는 활동전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이 20일 ‘평화통일운동과 통일목회 확대’를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복음적 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했다. 예장합동 통일준비위원장 김용대 목사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국면 전환기를 맞았다”며 “남북관계에 있어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 대북 인도적 지원 등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준위는 성명서에서 “평화통일 운동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통일전

문 비정부기구(NGO)를 설립하고 전국·해외교회로 통일운동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선포했다. 또 “이를 위해 한인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글로벌 통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한 출입이 자유로운 이민교회를 최대한 활용해 북한 동포의 피부에까지 닿을 수 있는 통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선 ‘교단의 통일운동 방향성 확립’ ‘통준위 활동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다른 교단의 경우 길게는 20여년 전부터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긴밀하게 접촉하며 재난구호, 민간지원 등에 나서고 통일선교 교육, 대북 정책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왔

교회가 ‘미투’ 태풍 격지 않으려면

“성폭력 예방대책·처벌제도 보완” 교계서도 목소리 커져

최근 법조·문학·연극계 등을 중심으로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계 내에서도 미비한 성폭력 예방 대책과 처벌 제도를 보완해 성폭력을 근절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국내선교부는 19·20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여전도회관에서 ‘교회 내 성폭

특히 목회자의 파멸을 위해서 성을 사용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교수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고충과 고민을 듣고 상담하는 사역을 피할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감정을 이입하거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자칫 의지가 무너져 내림자에게 대한 성적 친밀감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다”면서 “세뱃돈을 받으면 눈깔사탕과 쪽음탄을 사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놀았다”고 추억을 더듬었다. 인 소장은 “친구들과 연을 만들어 낱된 기억도 나는데 설날은 생일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다”면서 “선교사 가정이었던 우리 집도 설날에는 떡국을 끓였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전했다.

선교학자들은 당시 선교사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설 명절 분위기를 공유했을 것으로 봤다. 몽골 선교사 출신의 안 교수는 “몽골의 설날인 ‘차강사르나’ ‘나담 축제’가 되면 선교사들도 몽골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서 “과거 한국에서 활동한 외국인 선교사들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 명절 전후로 신앙 사경회를 개최했던 기록도 새롭게 다가온다. 농한기와 연휴가 겹치는 기간을 맞아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며 신앙의 성숙을 사모하는 기간으로 삼은 것이다. 한국교회 첫 부흥의 불씨를 맺긴 평양대부흥운동의 효시는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말씀사경회였다. 옥성득 미국 UCLA(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한국기독교학 부교수는 “선교사들은 설 연휴를 전후해 어김없이 사경회를 열었다”면서 “농한기이면서도 연휴가 겹치자 사경회를 열기엔 최적기였다”고 했다.

이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가족, 친지와 만나 고향에서 명절을 보낼 수 없는 탈북민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교회는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옷놀이 등 민속놀이를 기차공원 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탈북민의 향수를 덜어줬다.

조요셉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이 되기 전까지 고향을 찾을 수 없는 탈북민을 위해 교회를 개척한 2006년 이후 매년 명절에 행사를 열고 있다”며 “올해도 남북한 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설 연휴를 맞아 주일인 18일을 ‘동행하는 주일’로 지키길 권면하는 총회장 서신을 발표했다.

최기학 총회장은 “다가오는 주일에는 고향교회나 지역 내 작은교회, 농어촌교회를 찾아 예배드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며 함께 성장해야 하는 존재임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 고향교회에 헌금도 하고 방문교회의 주보나 역사자료, 사진 등을 수집해 출석교회에 전시하고, 그 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줄 것도 당부했다.

지만 예장합동은 이제 막 첫걸음을 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준위 측은 “NGO 설립과 대북사업자 승인 절차, 민간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준위는 이날 평화과학기술대 설립위원, 엔벨과기대(생명공학) 교수를 지낸 정규재(서울 강일교회) 목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정 교수는 “버섯 등 고등균류(高等菌類)를 활용한 대북 민간 식량지원 사업과 전인교육 사역을 접목해 대북선교 사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계헌 총회장은 인사말에서 “통일준비위 사역이 평화통일을 향한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고 구체적 정책 실천을 이루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목회자의 파멸을 위해서 성을 사용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교수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고충과 고민을 듣고 상담하는 사역을 피할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감정을 이입하거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자칫 의지가 무너져 내림자에게 대한 성적 친밀감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선교 펴기

2018년도 벌써 한달이 지나갔습니다. 그 간 안녕하셨는지요? 저희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명주와 명인이는 각각 4학년, 3학년 각각 1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명주는 이제 한 학기만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고 그 후에는 군 입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군복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명인이는 전 학년에서 자신의 작품이 몇개나 뽑혀서 전시를 준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인이는 지난달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엄마와 차를 몰고 나갔는데 진땀을 뺐다고 합니다. 내내는 교회를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어교사 자격증을 위해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올 9월 새학기부터 한국어를 제 2 국어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사로 적절한 학교에 연결되어 기본 소식을 위한 선행 영향력을 줄 뿐 아니라 거주허가증을 취득을 위한 방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연시가 바빴습니다.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와 연초에는 KGLI(Korea global leadership institute)에서 실행하는 약 10일간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KGLI는 글로벌화된 상황에 적합한 한국 글로벌 선교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관인데 3년에 12명씩 선발하여 집중 교육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GP의 인력개발원과 KGLI의 입학승인을 받아 이 코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상, 하반기 2주의 수업을 3년 동안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선교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선교적 교회론 수업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적 교회론을 제자도와 융합을 시도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터키에서 사역한 것을 한 번 정돈해보고 평가해보는 시간이 되었고 이 지어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계속 연구 계획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초가 중요하고 시작이 중요하단데 그동안 너무 생각 없이 사역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지난날의 경험을 살려 터키 특히 알레비종파의 선교를 위한 든든한 기초를 놓아보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권역대표로서 한 분 선교사님과 10시간이 넘도록 대화를 나누며 교제와 더불어 우리의 GP의 가치관을 함께

터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로서 우리가 모두 헌신한 사람들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권역대표직을 수행하다 보니 이러한 갈등관계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동료 리더들, 그리고 섬기는 사역자들과의 갈등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많은 생각도 하지만 어떤 때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 저의 영적, 심리적,



육체적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기독교 상담센터를 찾아가 8시간에 걸친 상담도 받아보고 커뮤니케이션 세미나도 들으며 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4권역의 사역자들의 연말보고서들을 받아보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며 2018년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다보니 1월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연이어 2월초에는 북아프리카 튀니스 지역을 국제 대표와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GP소속 팀들과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곳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교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GP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국제화와 더불어 변화하는 선교현장에 적응하기 위하여 큰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갈등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발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초에 있을 IDM(국제 지도력 회의)과 ICM(국제협의회 회의)을 위하여 여러 리더들과 깊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IDM

와 ICM을 통하여 GP가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카르탈 교회에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술탄과 하티제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행사 때에는 15명의 관심자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중에 2가정이 관심을 갖고 계속 예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히크메트(지혜라는 뜻)씨가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전화번호로 저에게 접촉해왔습니다. 한 찾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님께 그의 마음을 많이 준비해 놓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는 자신의 아내 니메트

역에 매진하다 보니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선교사님들과 신학교육 과정이 다시 필요한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학교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미국 FIU대학(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의 부총장이신 이규현 박사님과 GSID의 심상섭 박사님께서 강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곳 나이로비 캠퍼스의 코디네이터로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선교사로서 이곳 선교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금년 새해에도 계획 되어있던 몇 가지 중요한 사역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건축: 그동안 준비되었던 캄바 부족을 위한 콰보교회의 건축(한국 방주교회 후원-김두형 목사님)이 1월말 경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종 교단의 승인 요청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물개발: "예수님의 샘물 만들기"는 미전도부족에 대한 복음의 접근방법으로 유용하게 실시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금년에 맞사이 은조로(Njoro)지역에 우물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수년전 한국의 백동현 장로님께서 따님의 결혼기념으로 예수님의 샘물 하나를 헌정하셨는데 이번에도 다시 아드님 결혼을 기념하여 우물 개발에 후원

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 훈련: 오는 3월 현지 목회자 및 지도자 교육훈련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설교 훈련을 시키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저희들이 이곳 선교지에 온 햇수도 벌써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아내는 20대 후반에 왔는데 이제 둘 다 60대가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올 때 세 살과 한 살이던 아이들도 커서 가정을 이루고 손자

손녀들이 3명이나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결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겸손 준령 만발 때 도우소서"(찬송379장).

요즘이 참송이 저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생이 마칠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강인중 전선환 선교사 kang4kenya@g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알코올성 간 질환

지나친 음주는 만성 간 질환 유발

대다수의 미국인은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음주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여러 가지 적신호를 줄 수 있다.

-자동차 부품업에 종사하는 30대 후반의 정 모씨는 최근 피로감을 느껴서 인근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게 되었다. 술을 마시는 습관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니메트 부인이 히크메트씨에게 '카르탈교회'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는 너무 다르고 깊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1주전에는 동역하는 김 목사가 복음을 나누었는데 이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부가 세례공부를 통하여 믿는 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세례를 통하여 공격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빨리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토목학교는 지난해 12월 18일 종강예배로 2017년 겨울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그동안 성실하게 공부해왔던 아레트 형제가 지난 12월 9일 주님 품으로 먼저 갔습니다. 아레트 형제는 암으로 투병을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2,000명 이상이 술로 인한 만성 간 질환으로 사망한다. 술로 인한 간 질환을 살펴보면 별다른 증상 없이 진행되는 지방간부터 알코올성 간염, 심한 황달이나 복수, 혼수 등을 동반하는 말기 간경화증 등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만성 간 질환이 만성 알코올성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성 간 질환의 진행을 빠르게 하기도 한다.

지방간은 과음 후에 생기는데 별다른 증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병원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증상은 없지만 간이 조금 커져 있거나 혈액검사 상 간수치가 조금 증가할 수 있다. 알코올성 간염은 실제로 간에 염증이 있어서 대개 지방간보다 간수치가 더 증가하고 황달이나 미열, 피로감 등을 동반할 수 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간경화증은 지방간이나 알코올성 간염이 10-20년 이상 지속될 경우 생길 수 있는데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인한 경화증과 증상이 같고 예후도 유사하다.

알코올로 인한 만성 간 질환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말기가 되어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기 혈액검사로 간 질환의 징후가 나타날 경우 금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16면으로 계속)

(13면에서 계속)

심자가 불을 밝혔습니다. 케냐의 교회에는 심자를 잘 세우지 않습니다. 금번 한국심자가선교회(김광선 목사)의 후원으로 복음의 상징인 심자가를 세우고 LED 전구로 심자가의 불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세운 교회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을 중심으로 심자가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광야에 우뚝 선 교회에 심자가의 불은 불빛으로 인해 많은 복음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GSID 선교사 연장교육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5-15일 이곳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사 연장교육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사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02)749-9929,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풍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예 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Tel: (501)945-1512, Fax: (501)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벨넬교회</p> <p>담임목사: 백선중</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 유년, 종교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샬럿장로교회</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 유년, 종교부: (주)일 오전 10:45 / (토) 오후 8:00</p> <p>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금) /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3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p>	<p>안다루교회</p> <p>담임목사: 강준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9, Fax: (702)778-8876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lbc.com</p>	<p>알라사 제자들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8: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lbc.com</p>	<p>앵커리지벨리문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p>	<p>엘파소열린문교회</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915)755-1490, 사해(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성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백운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킬린온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요찬양예배: 오후 7:00 주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aleti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p>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 오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요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p> <p>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mcric.com</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p> <p>담임목사: 조진모</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2:00 월요일예배: 오후 7:45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o.org</p>	<p>아리조나 기도원 매매</p> <p>좋은 환경과 쾌적한 공간에 위치한 아리조나 기도원을 좋은 가격에 매매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7.3에이커 · 건물 3동 과 예배실 · 피닉스 공항에서 50마일 거리 <p>문의: 623-326-5532</p>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50)

8.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 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야기 (11) (Biblical Integration and Educ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이 이야기는 한인 교회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교육”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 의미에서의 “성경적 통합교육”의 정의, 목표 및 근간적 의미, 그리고 그 확장적 개념을 토대로, 한인 교회교육에서 실질적으로 “성경적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교회교육이 교육의 목적 및 목표, 내용, 방법, 교육자와 피교육자 등 여러 카테고리에서 살펴볼 때, “성경적 통합교육” 가장 큰 전제인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일(즉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여 가르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미 “교육 목적 및 목표”, “내용” 그리고 “방법”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야기에서부터는 “교육자 혹은 교사”라는 카테고리에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들이 성경적 통합교육을 제대로 실행하고자 할 때, 우리 교사들이 어떠한 자질 혹은 역량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했고, 가장 중요한 자질 혹은 역량 5가지-소명, 신앙, 교육학적 기술, 그리고 삶에서의 도덕적 신앙적 모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먼저 성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 그 첫 번째로 교사의 “소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한문으로는 “召命”이라고 씁니다. 지대한 권위가 있는 누군가가 중요한 과업을 맡기기 위해 누군가를 불러서(召) 그 과업을 실행하도록 명령하는(命)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단어가 사용된 컨텍스트에서는 그 지대한 권위가 있는 누군가는 일반적으로 “왕”을 일컫지만, 이를 교회 컨텍스트에서 사용할 때는 그 지대한 권위를 가지는 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일을 맡겨 행하게 하려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 큰 일을 행하러 엄중하게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를 보통 “calling” 혹은 “voc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이 이야기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과업을 명 받은 것,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며 그 직업들을 통해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업을 명 받은 것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교사의 소명이란,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사들을 교회의 교육이라는 큰 일을 맡기기 위하여 직접 부르셨음을 의미합니다. 교사의 소명이란, 즉,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의 교사의 자질을 논하면서, 교사의 “소명”을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구속사적인 역사관으로 성경적 통합교육을 실행할 교사의 첫 번째 자질은 따라서, 자신의 교사 직분을 이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교사라 불러 주셨다는 소명을 명백히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진지하고 겸손하게 이를 받아들

고, 최선을 다해 그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사의 소명의식이야말로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전제적인 교회의 교육적 사명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교사들에게 이와 같은 소명의식이 분명히 내재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렇습니다”라고 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사들 중에는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과 가르치는 일에 대한 은사가 있어서 뜻을 두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그런 것은 없지만 목회자의 강권으로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에 마음이 쓰여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사들 중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경험이 많은 교사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막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교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흥과 결을 가진 교사들에게서든 교사의 소명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회자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게다가 우리 교사들 중에는 “교사의 소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듣는다면, “소명”이란 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맡은 것 아닌가요?” 하고 물으실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직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기 때문일 것입니다만, 물론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가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음과 같은 바울 서

교사의 소명의식은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적 사명의 근간 “교사로서의 소명” 반드시 점검... 일생 통해 세련할 수 있도록 양육

있어서, 우리 교회들은 우리 교사들의 “교사로서의 소명”에 대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단지 인간적인 고찰과 결단에 따른 선택에 의한 것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맡겨주신 큰 일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명백한 소명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 그 소명(즉 교사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어 교육의 과업을 맡긴 직분이라는 것, 즉 소명이 있는 직분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교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교육의 실천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교회의 교육이란 소명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갖는 일과 정확하게 동일한 것이라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들은 우리의 교사들이 교사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명하신 소명 있는 직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개인의 교사들이 모두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받은 소명을 일생을 통해 세련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sinaichung@yahoo.com

신서들의 대목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4:11-12).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전12:28).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뿐 아니라 교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이며,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기라는 “교육”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맡긴 직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통합교육을 실행함에

고려에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경적 통합교육을 제대로 실행하고자 할 때, 우리 교사들이 어떠한 자질 혹은 역량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했고, 가장 중요한 자질 혹은 역량 5가지-소명, 신앙, 교육학적 기술, 그리고 삶에서의 도덕적 신앙적 모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먼저 성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 그 첫 번째로 교사의 “소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한문으로는 “召命”이라고 씁니다. 지대한 권위가 있는 누군가가 중요한 과업을 맡기기 위해 누군가를 불러서(召) 그 과업을 실행하도록 명령하는(命)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단어가 사용된 컨텍스트에서는 그 지대한 권위가 있는 누군가는 일반적으로 “왕”을 일컫지만, 이를 교회 컨텍스트에서 사용할 때는 그 지대한 권위를 가지는 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일을 맡겨 행하게 하려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 큰 일을 행하러 엄중하게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를 보통 “calling” 혹은 “voc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이 이야기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삼하23:2-3)

성령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성령충만의 모습이요 선지자와 사도의 모습이며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

고 약속하신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바위”는 영원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가 성령충만할 때 구체적으로 구원의 확신과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사는 날까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충만해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삼하23:3-4)

성령충만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높이고 증거하고 자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공의”는 “공평과 정의”를 말합니다. 공평하지 못한 것을 차별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하는 것이 습니다. 인종, 빈부, 지식, 건강, 세상의 모든 불평과 원망은 이 차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서로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항상 공평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더욱 감사한 것은 택한 성도들에게 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를 깨끗케 하셔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삼하23:3-4)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며 권세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충만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므로 나타나는

메시아시대, 즉 새로운 그리스도 세계의 복스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다스리시면 먼저 그 나라는 온은 해 아침 같습니다. “온은 해 아침”이란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악과 부패의 온갖 어두운 흑암의 밤은 다 물러가고 기쁨과 행복과 찬란한 번영의 아침 햇살이 비추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목 구름 없는 아침 같고(삼하23:4)

주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온은 해 아침 같은 찬란한 빛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구름 없는 아침 같습니다. “구름”은 온갖 근심과 염려 걱정을 상징합니다. 어둠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다 없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주님이 다스리시면 비온

후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이슬이 우리를 적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 이슬위에 광선을 비추므로 새 풀이 자라고 초목이 싱싱하게 자라듯 새생명의 사람들이 생명력이 넘쳐나고 하는 일마다 행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니(삼하23:4-5)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다투는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먼저 나와 내 집이 영원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확신과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축복이 나와 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은 항상 내

가 잘하고 못하는 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고 하면서 평가하며 평생 교만하게 살든지 평생 자신 없이 낙심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내 집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을 이미 믿고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함으로 힘차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토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삼하23:5)

다윗의 또 한 가지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도 가지가 있는데 “만사에 구비하셨다”는 말씀은 히브리문법 중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칼 분사”로 “잘 정돈해 공급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이 뭐지 알아도 우리 힘으로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수 있는 분이 만사에 잘 정돈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만사에 견고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보호하다, 보존하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할렐루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l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88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철민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6:30 새벽기도: 오전 5:00 새벽기도: 오전 6:30 Tel. (82)2-2646-319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0-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토요일은 없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중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용마루동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신촌동 49-45 www.shinchn.org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마루구 안암동 50-1 www.anamj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침례기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1004(1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

인/터/뷰

유성국 목사(Gospel-to-all선교회 대표)

“전도,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Gospel-to-all선교회를 이끌며 전도에 올인 하고 있는 유성국 목사가 지난 11일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에서 전도집회를 가졌다. 유 목사는 주일 1, 2부 예배와 오후 세미나 시간을 통해 전도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전도의 6단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사역의 도전을 심어주었다. 집회를 마친 유성국 목사와 짧은 인터뷰를 통해 그의 사역을 알아보았다.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입을 여는 유 목사. 그는 충북 음성에서 7남매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님들은 과수원을 하시는데 부지런한 분이셨고 아버지는 무교, 어머니는 절에 다녔기에 자신도 어머니를 따라 불교를 믿었다고 한다. “어머니와 함께 쌀을 메고 먼 길을 걸어 불공을 드리러 다녔지요. 그 당시는 불교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기에 어머니를 따라 법당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외우는 게 불교신앙생활의 전부였다”고 이전의 자신을 소개했다.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공부는 왜 해야 하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등등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그를 힘들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질문을 들은 친구를 따라 성경공부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모임에 참석한 이들의 모습은 한없이 밝고 명랑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 하나님은 그곳에서 유 목사를 부르셨다. OM 선교단체를 통해 돌로스라는 배를 타고 선교사



전도해야 하는 이유들을 들려주고 있는 유성국목사

회의 사역은 영혼구원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지상명령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러한 이유가 있기에 성도라면 당연히 전도에 관심을 쏟고 전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 했다. “성도라면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많은 사람들이

의 마음을 주시면 VIP(불신자) 찾아 나가라 △3단계: 찾은 VIP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라 △4단계: VIP와 관계 맺어가기(연락을 하고 만나기도 하라) △5단계: 계속 기도하며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의 믿어 열림을 알게 된다 △6단계: 마음 문이 열림을 알게되면 교회로 인도 하라 라고 자신의 전도의 삶을 예

전도가 어려운 이유 첫째, 마음이 없고 둘째, 롤 모델 없어 영생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전도...6단계 전도방법 소개

그렇게 생활하다 1979년 온 가족이 LA를 향해 이민 길에 오르게 됐고 대부분의 한인들이 그랬듯이 오자마자 부모님은 봉제공장에서 일하게 됐다. 그런데 하필 공장 주인이 목사님 관계로 평생 불교신자이던 어머니가 울며 겨자 먹음 식으로 교회에 발을 댈게 됐고 유 목사도 간혹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전혀 구원과는 관계가 없었다. 그러다 1982년 대학에 입학했지만 대학생활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공부도 어려웠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이 없는 답답함이었다고 한다. 삶의 의욕도 없고 우울했다. “나의 삶의 의미는

역도 감당했다. 그리고 결국 웨스트민스터에 입학해 신학을 마치고 오늘의 전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는 매일 전도한다고 한다. 아니, 자신의 삶이 전도라고 한다. 전도는 절대 힘들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억지로도 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전도는 제일 재미있는 일이고 영혼구원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해도 지겹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그는 오늘도 영혼구원을 위해 바쁜 행보를 잇고 있다. 유 목사는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전도는 영생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 △초대교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주위에 전도대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전도에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전도의 롤 모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따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성도들에게 롤 모델이 없는 것”이라고 단언하며 “전도에는 목회자와 교역자, 당회원 등 교회 리더들이 먼저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하고 전도에 열정을 갖게 되면 전도대상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서 전도의 6단계를 상세히 설명 했다. △1단계: 예수님의 소원이 전도구나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위한 마음의 헌신의 마음 갖기 △2단계: 전도

로 들며 알기 쉽게 설명해갔다. 유 목사의 홈페이지(http://www.gospeltoall.com)에 들어가면 전도관련 많은 자료들이 게시돼 있고 불신자뿐 아니라 이슬람, 여호와증인들을 전도할 때 필요한 자료들도 수록돼 있다. 유성국 목사는 전도 관련 책을 출판준비 중에 있으며 영어와 한국어, 스페니시로 된 전도지도도 준비돼 있어 전도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 전도관련 자세한 문의는 samyoo2024@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14면에서 계속) 터키에 형제가 꼭 필요하니 치료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아마도 아레트 형제가 천국에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슬하에 3 자녀가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겨울수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초에 다시 2018년 봄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번학기에는 저도 한 학생을 도와 함께 강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봄학기에 잘 준비하고 터키의 교회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될 학생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거류허가증이 오는 4월 30일에 마감이 됩니다. 다시 연장을 해야 하는데 내전으로 인

해 터키에 피난 온 시리아 난민(약 300만명)으로 인해 외국인인 거류허가증 취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류허가증 연장이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범계를 앞두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한 발을 2018년이

라는 요단강에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두고 전진해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한결음씩 전진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가 가정과 섬기시는 일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요셉 & 서헬렌 배상 shmmkim@gmail.com

기독교 경영 전략

Christian Business Strategy in the Marketplace (2)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경영의 성경적 원리

경영(Management)이란 '조직의 목표를 설정, 고도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의 재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행하는 행동'을 말한다. 즉 경영을 한다는 것은 어느 경제단위를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의식적으로 계획, 유도하고 지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학교, 병원, 고아원 등과 같은 비영리적 경제단위나 영리적 경제단위인 주

이 직접 관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 경영은 무엇인가? 기독교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사회적 공동체로서 기업이 하나님과 사람을 탁월하게 섬기기 위한 가치 창출 활동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업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잘 경영하여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오히려

왜곡된 기업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 실천하는 것

사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이들 경제단위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도록 계획하고 낭비 없이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기업이란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그 위험성을 극복, 더욱 큰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경제단위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모든 경제 단위(비영리적 경제단위와 영리적 목적으로 하는 경제단위)는 경영체이며,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하는 경제단위를 기업체라고 부른다. 종합해 볼 때 경영은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을 연구하는 학문은 경영학(Business administration)이다. 경영학은 산업 구조가 복잡해지고 수많은 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실제 회사 경영에 필요로 하는 지식의 체계화와 전달을 위하여 경제학에서 독립한 학문으로 넓게는 국민 경제, 좁게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문제들에 관심을 가진다. 국민 경제와 기업의 발전, 즉 효율적이고 수익성의 향상을 위한 계획이나 조직 체계의 개선책에 관한 연구와 실천에 경영학

피조세계를 파괴하고 신음케 했다. 무분별한 자원개발은 자원을 고갈시키고, 각종 공해를 배출하여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간의 타락은 개인 및 조직에 동일하게 영향을 끼쳐 기업 활동을 왜곡시켰고, 기업의 본질적인 의미를 손상시켰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자연을 향한 기업의 목적을 왜곡시켰다. 따라서 기독교 경영에 있어서 성경적 원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왜곡된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회복은 타락으로 인해 왜곡된 것을 되돌리는 재창조의 과정으로 사람과 조직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맞게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을 경영할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기독교 경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다. dr.jameskoo@yahoo.com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해 온 미드웨스트대학교 www.midwest.edu

Master and Doctoral Degree Program

Brain/Gifted Education 두뇌개발, 영재교육 석사, 박사학위 과정

MBA - Public Policy/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석사학위 과정

- Master of Arts Education in Brain / Gifted Education**
입학자격: 유아교육, 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 Doctor of Leadership in Brain / Gifted Education Leadership**
입학자격: 대학에서 유아교육, 교육 전공자, 유아교육, 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교육경력 3년 이상인자.
- MBA - Public Policy Administration**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 학점, 학위취득 방법 ●**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 2) 직장 사역자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이 가능함.
 - 4) 타 학교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함.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 B.A 학사- 경영학, 음악, 신학, 기독교교육학
 - B.S 항공학과- 조종사과정, 승무원, 운항관리사
 - MA 음악, 영어교육, 상담, 교육(두뇌개발, 영재 교육)
 - MBA 리더십학, 공공정책과 행정, 글로벌비즈니스, 경영학, 투자
 - M.Div 신학
 - D.Min 상담, 교육, 목회신학, 선교,
 - DM 음악 박사
 - DL 리더십학 박사 - 경영리더십, 조직리더십, 두뇌개발/영재교육리더십

- B.S in Aviation Management/ Flights 항공학 학사 및 국제 조종사 면장과정**
전공: 항공운항과, 헬기운항과, 운항관리사, 승무원과정
신청자격: 고졸이상자 및 전문대 혹은 대학 중퇴자, 대학졸업자, 전공에 관계없이 편입가능, 여학생 환영
- 항공학과 특징 ●**
 - 1) 미국의 타 항공학과와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 2) 한국에서 조종 실기는 2-3년 소요되는데 본교에서는 학위과정 중 조종사 면장까지 취득가능.
 - 3) 비행 훈련을 위한 넓은 활주로와 실기용 비행기 20 여대 준비 되어있다.
- Pilot Certificate Programs (국제조종사 FAA 면장과정)**
일반 대학졸업자를 위한 조종사 면장과정- 1년 과정(자가용면장, 계기비행면장, 상업용 면장)
- 본교소개 ●**
본교는 1986년 세계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 미 중부 도시 St. Louis 에 설립되어 개교 32주년을 맞는 미국 대학교이며 워싱턴 DC 에 본교, 서울, 방콕, 페루에 Site 를 두고 있고 동문과 재학생은 세계 60여개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교이다.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교 코드 (USDE) OPE ID: 03528300
미국,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학점과 학위를 인정 받는 미국정규 학위
입학상담 및 문의처 : 636-327-4645, 070-8690-2662,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p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